



## TimHaahs 하형록 CEO 모교 졸업식 축하

26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496명, 석사 1786명, 박사 688명 등 총 4970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졸업 축하를 맡은 건축설계회사 팀하스(TimHaahs)의 하형록 대표는 “선한 인재의 길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지만 그 희생은 참으로 값진 것”이라며 “정지돼 있는 명사가 아닌 전진하는 동사로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1957년 부산에서 한센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969년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이민 온 재미동포다. 유엔에서 건축학을 공부한 그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국립건축과학원 이사직을 맡고있다. 그는 또한 본 미주총동창회 손재욱 회장의 부군이기도 하다.

‘희생’과 ‘동사’는 하 대표의 삶을 보여주는 키워드다. 심장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계속 뛰는 심실빈맥을 앓고 있다. 1993년 첫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5개월을 기다려 찾은 건강한 심장을 옆방의 위급환자에게 양보했다. 1주일 뒤 혼수상태에 빠져 한 달을 사경을 헤맸다. 하 대표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에 서자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무엇’이 되겠다는 명사형의 꿈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다면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겠다는 동사형의 꿈을 꾸게 됐다”며 “죽는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다른 이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실천했고 한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러분의 꿈을 동사(動詞)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십시오. 참된 희생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위급상황에서 그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심장을 받았다. 그리고 6년 뒤 제대로 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 지금까지 살았다. 15년을 버텨오던 세 번째 심장에 지난해 문제가 생겼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한 사람에게 평생 두 번의 심장 이식만이 가능하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22년 전 다른 이에게 좋은 심

장을 양보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은 사정을 감안해 그에게 특별히 또 한번의 심장 이식 수술이 허용됐다. 그는 “생명을 기꺼이 내줬던 한 번 더 새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졸업생에게 “의사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아픈 이를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고, 음악가가 되겠다고 하지 말고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라”고 했다. 이어 “동사의 삶은 목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라며 “힘든 길이고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일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 같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 |                                  |                                  |
|----------------------------------|----------------------------------|
| 1 하형록 CEO 모교 졸업식 축하              | 13 동문동정: 이윤정/하택집/조은수/손수득         |
| 2 미국대통령의 선출방식                    | 14-15 한국어의 영어오역/서울대 병/팬콤 김영민대표   |
| 3 한반도 위기와 중국정책/지도자는 누구인가?        | 16-18 기획: 나의 웰빙비법/음악: 바흐존·케이저·탄동 |
| 4 어플루엔자/한국과 미국의 웰다잉법             | 19 미술: 공간감각/각테일상식                |
| 5 혁신의 도전                         | 21 안중근 의사/서울대 독서 1위 책은?          |
| 6 모교소식: 발전기금/공대카페                | 22 시: 회한/철학: 실존과 본질              |
| 7 하지마비 장애 모교 합격/소년가장/인턴체험담       | 23 영화: 히말라야/과학: 진짜 자동차를?         |
| 8-9 My Story & Your History      | 24 건강: 아스피린/부고                   |
| 10-11 지부: 남가주/뉴욕/시카고/휴스턴/워싱턴/게시판 | 25 이달의 사진/독자의 광장/편집후기            |
| 12 동문동정: 박영구/김로이/시: 서윤석          | 26 여행기: 폴투갈/만화                   |

## 전근대적인 미국대통령의 선출방식



이항열 (법대 57)

현재 미국에서는 벌써 15개 주에서 대선 의 예비선거와 코커스 선거로 민주당,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의 박빙 대결이 막 끝났다. 아직 정식 대통령 선거는 11월 8일로 8개월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Media는 선거 열풍에 쌓여 있으며 벌써 후보자들은 수심악화의 선거자금을 뿌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경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자가 될 것 같으며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각각 9개 주에서 승리하여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공화당의 원조 기성 지도자들은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하였던 아웃사이더(?), 막가파식의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자가 못되게 안간힘을 쓰고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복잡하며 선거 운동기간이 거진 1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나? 그 이유는 228년 전에 만든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에 많이 기인한다고 본다. **미국 헌법 2조 1항에 보면 미국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이 뽑는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각 주마다 선거위원이 배당되었으며 각 주의 선거인원수는 그 주의 상원의원 수와 하원의원 수를 합친 수라고 하였다.** 즉, 제일 인원수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2명의 상원의원과 53명의 하원의원이 있으므로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에 55표를 가지게 되며 둘째로 큰 텍사스 주는 38표를 가지게 된다.(상원 2명 +하원 36명) 셋째로 많은 인원수를 가진 뉴욕과 플로리다 주는 각각 29표 (상원 2 + 하원 27), 이렇게 50개 주의 의원수를 합하면 535표가 되는데(상원 100 + 하원 435) 현재 Washington D.C.는 국회에 정식이원이 없으므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3표를 가질 수 있다고 후에 법으로 추가되었다. 따라서 535표와 D.C.의 3표를 합한 538 인원수가 선거인단의 총수이며 538표의 과반수 270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만약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고 명기되었다.

그러면 각 주의 투표는 어떻게 결정되나? 48개 주(Maine, Nebraska 주 예외)에서는 제일 많이 표를 얻은 후보자가 전 주의 투표를 획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몇백만 표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후보자 A가 후보자 B보다 100표를 더 많이 받았으면 근소한 차이인데도 A후보가 된 55표를 독차지하게 된다. 이런 복잡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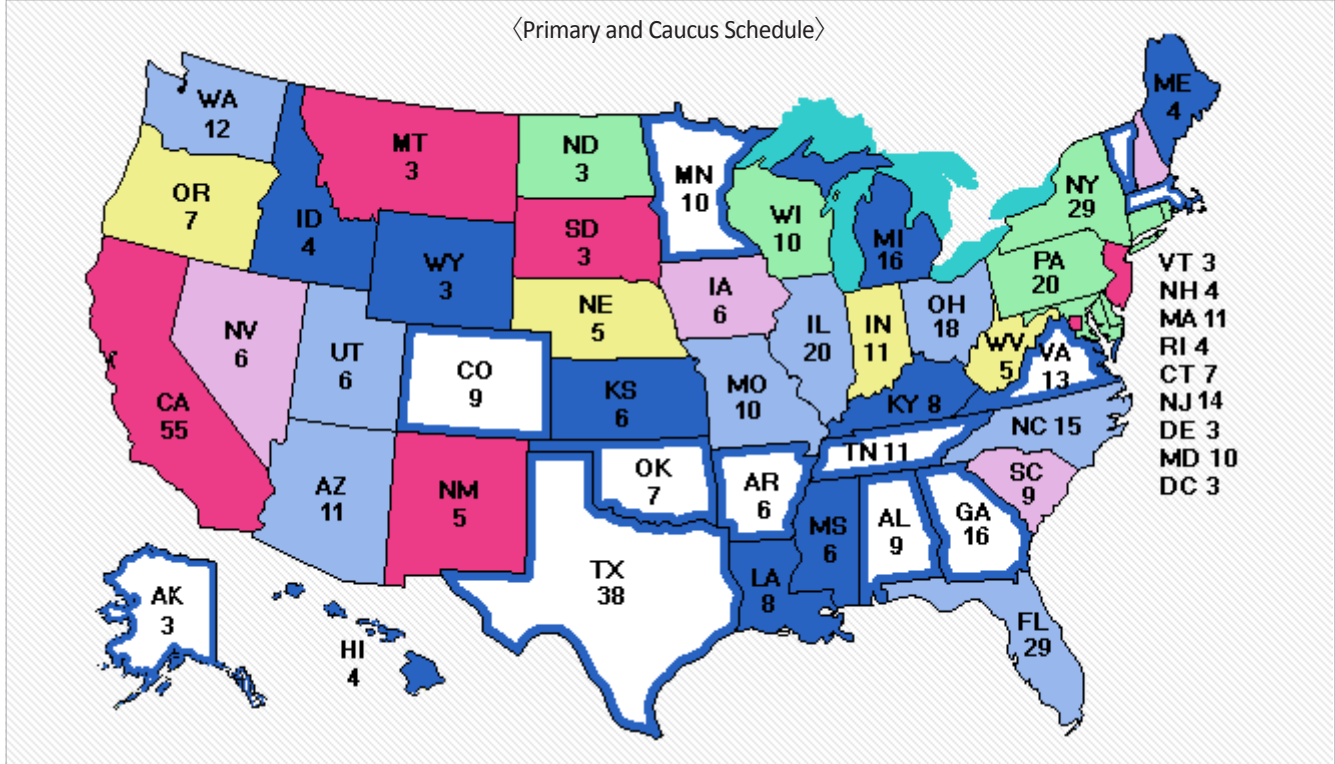
고 불합평적인 대통령 선출 방식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네 번이나 총국민투표를 더 많이 받은 후보자가 적게 받은 후보자에게 패배를 당하였다. 최근의 예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알고어(Al Gore)후보가 국민들 투표에서 16만표를 더 받았으나 부시(W.Bush)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것도 근소차이의 Bush의 대통령 선거 승리도 Florida의 25표를 획득하여야 되는데 Florida선

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선거인단에서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직에 대한 존경심과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현 선거제도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2016년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경합하는 것처럼 왜 미국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는 조그만 주,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수석불의 경비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총 수(538표)의 1%도 안되는 아이오와(6표), 뉴햄프셔(4표), 네바다(4표), 다 합쳐서 3%도 안되는 표를 결정하는 간접 선거 또는 Caucus 투표들로 미국 전체가 너무 시끌벅적스럽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남부, 중부, 동부, 서부 네 개 선거지역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를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것이 이상적이 아닐까? 현재 같은 예비선거 제도 때문에 과히 오랜 경험과 숙련을 거치지 않고 여론 매체를 잘 Control하거나 수백만불의 광고 선전으로 자기 압력을 과장하거나 다른 후보자들을 깎아 내리면 하루 아침에 매력있고 정직한 후보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 같이 많은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약속하며, 많은 투표자들이 정부에 불만과 노여움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여 투표를 얻으려고 감언이설로 위협하게도 투표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투표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좋지만 표를 얻기 위하여 극단의 인기 연합주의(Populism)로 쏠리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Plato(플라토)가 예언한 것처럼 중우 바보 정치가 되며 또한 전체주의로도 발달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Plato와 더불어 철학의 원조인 Aristotle도 정치는 가능한 것을 달성시키는 예술이라고 단언하였다.(Politics is art of possible.) 허황된 약속으로 다른 후보자들을 거짓말쟁이나 악인으로 비하하는 선동자들은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제로 근래 선거 역사상,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고 보수주의가 지배하는 텍사스에서는 오래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2016년 11월 8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국 Swing State인 Colorado, Iowa, Ohio, Virginia, Florida, Nevada, Pennsylvania, Virginia등에서는 열연이 벌어지고 선거운동이 활발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주에서는 벌써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 대통령 선거제는 개정되어야 하며 불행하게도 과거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도 1934년처럼 상원의 3분의 2 지지를 못받아 좌절될 것 같다. 역대 대부분 대통령들은 특히 대개의 보수자들은 현 선출방식이 대선 때 자기들에게 유리하므로 헌법 개정애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주주의가 발달돼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보급한다는 미국이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또 선거비용도 거의 제한없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뽑는다는 것은 국제 민주화 시대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쉐파드 대학 전 석좌교수, 논설위원장)

## “한반도의 위기와 중국의 정책”



이재진 (문리대 55)

새해 초부터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어 머지않아 무력 충돌로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한달 후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즉각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을 요청하면서 개성공단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 프로세스**”라는 일종의 **대북 유화정책을 포기**하고,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을 주장하며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실로 남북관계는 어느때 보다도 첨예한 대립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일촉즉발의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은 한반도위기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정하고 막강한 최첨단 무력(F-22 전투기, B-5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과시하고 대대적인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상하양원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경제제재법안을 2월 18일 서명하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접촉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케리 국무장관은 2월 24일 왕이 중국의 교부장과 타협하여 역대 최고수준의 유엔제재결의안의 초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위기에 관하여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는 비난하지만 한반

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함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성실히 그리고 계속하여 수행할지도 의문스럽다. 지난 3년동안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실망과 불만을 수 밖에 없다. 박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져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다짐하였고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켜 한중 경제협력을 확대하였

### 전략적 동반자 관계 무시?

장에서 열린 “전승 70주년기념 열병식”에 미국의 우방 가운데 유일한 국가원수로 참석하였다. 미국의 조야에서는 박대통령이 친중정책으로 경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 또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고 있는 축복된 위치에 있으며 한중관계는 최상의 지위에 있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중국과의 우호관계와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막상 중국의 이해와 협조가 긴급하게 필요한 위기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무시하고 말았다. 시 주석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박대통령은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한국배치를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동안 박대통령과 시주석은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중요한 국가이익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무력해지는 것이 국제정치의 연연한 현실이다.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시 주석은 김정은 체제가 담긴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분열으로 붕괴되거나 위험한 무력도발을 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수단(무역, 원유, 금융, 식량, 한방, 항공, 철도, 통신, 교량, 관광, 광산 등)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중국의 충고를

거역해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북한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골치 아픈 부담이 되겠지만 잠재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체제가 생존할 정도라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 정상회담을 가진바 없지만 리우엔차오 국가 부주석이 2013년 7월, 그리고 류원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2015년 10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위원장과 회담하고 그와 함께 열병식에 참석한 바 있다.

중국은 1961년에 북한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공조체제가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보다도 차라리 한국이 사드 배치에 관하여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수출의 약 25%를 중국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필요하다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하여 경제를 외교정책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재도입되면 중국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적대정책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촉발했다고 주장하며 미북간의 직접 협상을 장려하고 있다. 사실 남중국해 등 여러가지 현안을 둘러싸고 악화일로에 있는 미중 관계가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만일 한국이 앞으로 강온·양면정책을 절묘하게 구사하여 남북관계의 돌고루를 찾을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진정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 그러한 가능성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스스로 방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방안을 공고히 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중국에 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경제적 의존도를 점차 완화시키며 중화사상과 대국주의에 도취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냉철하고 슬기로운 정책을 추구한다면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중국도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클레이몬트 맥키나대학 명예교수, 본보 논설위원)

김형오 (외교 67)

지도자는 누구인가? 서울대 출신이면 지도자인가?

고대 아테네에 알키비아데스란 인물이 있었다. 돈 많은 명문 귀족으로 좋은 소문 밑에서 배웠다. ‘열정’에 ‘몸장’이어서 못 여성들을 사로잡았다. 지략과 웅변 솜씨도 뛰어났다. 승승장구 출세 길을 달려 최고위직인 장군에게까지 올랐다. 처음에는 평화노선을 주장했으나 라이벌에게 그 공이 돌아가자 주전론자로 바뀌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부추겼다. 치명적 실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스파르타로 망명했다. 자신에 대한 스파르타 사람들의 의혹을 씻으려

펠로폰네소스 전쟁 말기에 역사를 교란했던 이 희대의 인물

은 결국 비참한 최후로 생을 마감한다.

지도자는 누구인가?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은 착잡하다. 금세 사라질 것 같은 트럼프 돌풍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는다. 직설과 막말, 막가파식 행동이 오히려 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에게 카타르시스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점잖고 교양 있는 잼 부시는 일찌감

치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자칭 사회주의자라는 버니 샌더스는 젊은 층의 지지를 얻고 힐러리 클린턴과 예측불허의 계임을 연출하고 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미국이 세계의 지도

국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생겼다. 경륜과 권위, 품격과 도덕성 등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이들에게선 별반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떤가? 최근의 국회 모습을 보면 대담이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기력 그 자체다. 입법부란 글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곳이면 정부가 애та게 원하는 법을 안 만들고 있다. 여당이 요구하는 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원하는 건 여당이 퇴짜를 놓는다. 19대 국회 4년 동안의 입법 실적! 역대 국회 중 가장 저조하다. ‘선진화법’으로 실물 국회가 태버린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본질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독립된 헌법 기관 같은 국회의원의 자율적 권능도, 국회를 움직이는 지도부의 리더십도 찾아볼 수 없다. 정녕 한국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 현실이다. 지도자는 수임해 올 수 없다. 지금 적어도 1%의 지지율이라도 가진 사람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정치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내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개인 미국이라면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지도자여, 깨어나라”고 말이다.

알키비아데스처럼 모든 걸 갖추고도 나라를 배신하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 지도자. 국가 현안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지도자, 눈치 보기로 바짝 엎드려 있다가 임으로만 나라 걱정하는 지도자, 정치 혐오증에 빠진 국민 정서

에 교묘히 파고들어 궤변과 변칙을 자행하는 지도자는 먼 옛날 남의 나라 얘기만아 아니다. 바로 오늘 여기, 우리나라의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지도자가 다스리고 이끄는 국가의 운명은 너무도 뻔하다. 나라는 망가지고 국민은 불행해진다.

그런 비극을 막으려면 결국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들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공동체적 정의가 깃들게 해야 한다. 지적 능력과 통찰력, 상상하고 공존하는 마인드를 갖게 해야 한다. 그들이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해야 한다. 그들이 떠난 뒤에도 우리는 남아서 지키고 살아야 하는,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내 나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깨어나고 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국민이다.

(충동창회보에서 편집/부산대 석좌교수, 전 국회의장)

# 어플루엔자 (AFFLUENZA)

- 텍사스 Affluenza Kid 스토리 -



이영재 (상대 58)

요즈음 자주 등장하는 텍사스 어플루엔자 소년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있다. 2013년 16세의 카우치가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이 사망하고 두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얼마후 법정 에 섰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정신과 의사를 증인으로 세워 카우치가 심각한 어플루엔자를 앓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정신 연령은 12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부호의 아들로서 몇대의 차를 골라 탈 수 있으며, 돈도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었다. 이 소년은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자랐다. 그의 사전에는 ‘미안해’라는 단어는 없고 그대신 ‘얼마면 되겠어?’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이런 어플루엔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보다는 병원이며, 병의 치유만이 그를 정상인으로 살게 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결국 판결은 ‘10년 징역유예, 사설재활치료센터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되 술과 운전을 금함’이었다. 이 판결에 대해 일부 차별적 판결을 반복하는 사법제도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준 예라며 많은 언론이 비난하였다. 그런데 세상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카우치가 재활원에서 음주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체포하려 했으나 그가 병수발

(?)하는 어머니와 함께 행방을 감춘 후였다는 보도였다. 작년 12월 18일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들은 열흘 후 멕시코에서 그곳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카우치는 현재 텍사스로 이송 감금되고 곧 다가오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 어플루엔자란?

‘Affluenza (Affluance + Influenza)’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1950년대 가주에서 누군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나 확실치 않고 1970년대에 다소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단어가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은 1997년 정신과 의사 제시오닐의 책 “The Golden Ghetto: The Psychology of Afflu-ance”에서 사용되었고, 같은 해 John Graaf 라는 필름제작자가 PBS에서 방송한 ‘Affluenza’라는 다큐멘터리가 히트를 치면서부터이다. Graff는 계속하여 두명의 동료와 함께 ‘어플루엔자’라는 책을 2001년에 발간하고 그 후 두번의 개정판을 내어 어플루엔자의 대가임을 과시해 왔다. 오늘날은 큰 유산을 받은 상속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후유증 즉 의욕상실, 소외감, 자긍심결핍, 정서적 감정결핍 등을 많이 다룬 반면, 그래프 등은 부유층은 물론 빈곤층이 겪는 증상과 기타 사회정치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다루고 있다. 오닐과 그래프는 각기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텍사스 어플루엔자 소년의 2013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관심을 끌었다.

영국의 심리학자 올리버 제임스는 2009년에 같은 타이틀의 책을 썼는데 남들과 약간 다른 접근을 한 점이 돋보인다. 그는

자본주의 발상지인 영어권 국가 즉 영국, 미국, 호주 국민의 행복지수가 30년 전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서구 사회민주주의 국가, 스웨덴, 덴마크 및 홀랜드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훨씬 높은 걸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니, 전자는 소유, 외관적 성공, 명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이기적 자본주의를 실천하고, 후자는 덜 이기적인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나라 들어라고 설명한다. 경제학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소득 불균형의 크고 적음의 차이이며 소득 불균형을 측정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미국은 지니계수가 50%로 가장 높고 스웨덴은 23%로 가장 낮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낮을수록 행복지수는 올라 간다는게 정설이다.

## 어플루엔자의 심각성과 유행성

어플루엔자가 부자의 자녀 또는 상속자들에게 국한된 정신 심리적 질환이라면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물질적 성공과 외관적 명성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만성불만증, 과로, 인간관계 실패, 스트레스 등이 유행성 감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다. 어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상류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전체에 퍼지며 특히 빈곤층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가난한 자도 잘 살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기는 불가능하도록 경제적 구조가 짜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실망감, 열등감, 부채, 과로 등의 어플루엔자는 심각한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사회정치적, 환경적 어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것 같은데 특히 소득불균형이 극치에 이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사화들이 더 불안하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보여주는 이변적 사건들도 주시해야 한다.

## 한국적 자본주의와 어플루엔자

한국의 자본주의 역시 극도의 소득불균

형을 초래한 실패한 자본주의다. 외환위기 이전의 자본주의 체제는 극도의 정부 주도형 체제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정부주도를 지양하고 경제를 자유화하여 시장중심의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에서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경제가 재벌로 집중되어 한국은 재벌공화국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성 교수의 말을 빌리면, 한국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선진국 학자들처럼 신자유주의를 맞지 말고 임금과 고용같은 일차적 분배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총소득의 증가율에 비하여 임금의 상승율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는 것과 일차적 분배(임금, 배당 등)를 줄이고 잉여금의 사내 유보가 늘어나는 것도 소득의 양극화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다. 조세제도를 통한 2차적 분배의 개선보다는 1차적 개선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30개 대기업집단이 한국 총수출의 80%를 점할 정도로 재벌의 규모는 비대하며, 계열사를 늘리고 자산규모와 매출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 부문까지 침투하는 것이 한국적 재벌의 특징이다. 그들은 정치권력과 법조, 언론, 금융에 대한 로비로 초법적 지위를 누린다.

그들이 로비에 사용하는 검은 돈의 액수는 헤아리기 힘들 것이다. 만일 이 돈의 액수를 부유층의 소득에 추가한다면 부의 양극화 현상은 미국의 수준에 버금간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요즈음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한 드라마를 통하여 어떤 비도덕적 대기업의 방대한 로비와 매수행위를 실감나게 감상하고 있다. 물론 과장된 것이지만... 그리고 재벌 2세가 앓고 있는 한국적 어플루엔자인 분노조절 장애와 갑(甲)질을 리스트에 추가한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올리버 제임스의 ‘이기적 자본주의’라기 보다는 한국만의 ‘기형적 자본주의’ 같다. <금융인>

# 혁신의 도전

가치창출에서 웰빙 그리고 스마트 미래의 창조 1



이상문 (상대 57)

신은 고대시대에서 현재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끝없는 도전이다. 많은 사람들은 혁신이 발명, 특허, 새로운 기술 또는 기적 같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혁신은 그 범위가 훨씬 더 광대하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으로 과거와 다른 기법을 응용하여 새롭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곧 혁신이다. 새로운 발명, 기술, 아이디어 등은 혁신의 씨앗일 뿐 혁신 그 자체는 아니다. 많은 과학적 발견이 학술적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을 뿐 새로운 가치창출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혁신의 씨앗을 심은 후에는 물, 빛, 적당한 온도, 비료, 잡초제거 등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정성과 위험감수가 필요하다. 이 과정이 기업가 정신이다. 따라서 혁신의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이노프러너십(Innopreneurship = innovative idea + entrepreneurship- 필자가 만든 용어), 즉 새로운 것을 실제로 응용하여 가치창출을 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조직은 가치창출을 위해 존재한다. 그 가치는 더 행복한 삶, 건강한 신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문화와 지적 성장 기회, 고객만족, 이윤 등 조직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 단계적으로 가치를 더해야 할(value adding) 가치사슬(value chain)이 있다.

기업의 경우, 가치창출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혁신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운영전략에 따라 점진적(incremental/ continuous) 혁신, 혁명적(radical) 혁신, 파괴적(disruptive) 혁신, 그리고 융합적(convergence) 혁신 등으로 현재의 고객과 잠재적 고객에게 더 좋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디지털시대에서 혁신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네트워크 된 글로벌 경제체제와 가족으로 변화하는 기술과 경영방법의 발전은 가치사슬의 수명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모델은 적은 수의 조직원으로 수 많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소유(공장 등 물적자산)보다는 사용(access), 비용의 절감 보다는 무비용

(digital goods), 규모(scale)보다는 민첩성(agility), 독자적 가치창출보다는 초일류 기업과의 협력(collaboration)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Nike, Facebook, Instagram, Uber, Airbnb, 99dresses, What-sApp 등이 좋은 예다.

융합경제(Convergenomics, 필자가 만든 용어)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디지털기술을 응용하여 융합하며 많은 가능성을 현실화 해주고 있다. 이러한 혁신의 중심은 협력(colaboration)이다. 다빈치 수술로봇(DaVince surgical robot), 장님을 위한 디지털지팡이 레이(digital cane Ray for blind persons), 의료관광, 더러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라이프스트로우(LifeStraw, 사진), 뇌파로 움직이는 휠체어(brain wave directed wheel chair) 등이 좋은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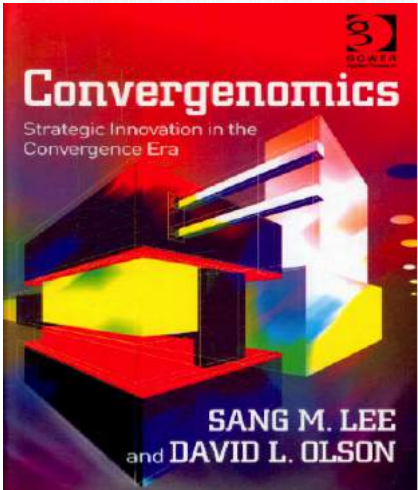
이제 더 좋은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은 별로 생소할 것이 없다. 디지털변화(digital transformation)가 상상만으로 가능하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스마트 센서(smart sensor), 학습기계(self-learning machine), 공동혁신(co-innovation), 공동창조(co-creation) 등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 따라서 혁신의 새로운 과정은 가치창출을 탐미하여 편안하고 새로운 웰빙(well-being), 그리고 더 나아가 스마트한 미래 창조로 지향하고 있다. ‘스마트’는 희망(hope) 또는 선망(aspiration)의 개념이다. 스마트한 미래는 복잡한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적 노력으로 이제 생활고로 시달리는 인구는 16억으로 줄었다. UN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이 숫자를 8억으로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빈부의 격차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요인이다.

두번째 사회문제는 디지털 격차이다. 세계인구 73억 명 중에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사람은 약 40억 명이고, 스마트 단말기를 쓰는 인구는 약 30억 명이다. 디지털시대에서는 인터넷 없이는 뉴스(News)나 통신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식창조, 지식공유, 지식응용이 불가능하다.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제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처럼 사회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 또는 공헌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더구나 신체적 장애인들은 디지털기술의 도움이 없으면 많은 기술적, 의학적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예, 장님을 위한 디지털지팡이 Ray, 뇌파로 움직이는 휠체어 등). 세계 30억 이상의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웰빙은 혁신의 중요한 과제다.

세번째 사회문제는 비전과 목표의 격차이다. 우리는 세계 각지에서 문화, 사고, 인종, 종교, 성(gender)에 의한 분쟁을 겪고 있다.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아프리카, 남미, 구소련국가들은 계속되는 내전과 분쟁으로 수천 만명의 피난민과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고, 유럽과 미주에서는 테러로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 세계질서와 평화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비전과 목



- ◆ 목적이 있는 삶: 매일의 일과를 즐기며, 달성하려는 목표의 존재
- ◆ 사회적 유대: 서로 희망과 의미있는 그리고 유기적이고 지원적인 상호관계, 신뢰, 애정, 참여있는 삶
- ◆ 재정적 안정: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미래 생활의 보장
- ◆ 공동체에 대한 만족: 국가, 도시, 사는 동네와 이웃에 대한 만족, 자부심
- ◆ 신체적 만족: 건강한 신체, 건전한 일과, 매일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에너지
- ◆ 성장의 기회: 배우는 즐거움, 탐험, 모험, 새로운 경험이나 활동의 기회

글로벌 웰빙 인덱스는 각국의 국민들이 각자 누리고 있는 웰빙 요소를 자가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웰빙을 누리는 나라들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또는 중·남미 국가들(파나마, 코스타리카, 칠레) 등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20~25등 사이이며, 한국은 110~120 사이에 위치해 있다.

위에서 설명한 웰빙 요소들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밝은 웰빙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마트한 혁신이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다음 일곱 가지 스마트 혁신이 필수적 요인이다.

- ◆ 스마트한 국민: 디지털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은 국민
- ◆ 스마트한 리더십: 국민이나 조직원과 공유할 비전이나 목표를 공동창조할 수 있는 능력
- ◆ 스마트한 인프라: 효율적 공공 교통, 에너지, 깨끗한 물, 안전한 환경 창조
- ◆ 스마트한 산업: 융합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모델 창조
- ◆ 스마트 의료·교육시스템: 디지털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의료, 교육시스템의 혁신
- ◆ 스마트한 정부: 범치사회, 책임감, 투명성, 개방과 사회적 정의를 보장
- ◆ 스마트한 흡과 자동차: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동관리 시스템

# 한국과 미국의 웰다잉(존엄안락사)법

이른바 ‘웰다잉(Well-Dying)법’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이 열린 것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등 특수장비에 의존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이를 중단하는 조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임종기’에 놓인 환자가 자신의 뜻을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 같은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수분,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한

##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길 열려”



자의 인공호흡기를 댄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특히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일명 ‘김 할머니 사건’은 ‘존엄한 죽음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킨 계기가 됐다. 2013년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

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존엄 안락사법(Death with Dignity Act)라고 불리는 이 법은 2016년 1월 현재 5개 주(OR·WA·VT·NM·MT)에서는 주별로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엔 합법이고 45개 주에서는 불법이다.

오래전 주에서는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 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워싱턴 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선거를 통해 60%의 찬성표를 얻어 존엄사 법을 통과시켜 2009년 3월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환자의 나이가 적어도 18세이고, 워싱턴주의 거주민에게만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의사 2명이 진단 내려야하고,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15일 사이로 2회에 걸쳐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해야 하며, 2명의 참관인과 함께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In USA, Federal Laws on Euthanasia and Assisted Suicide: The federal government and all 50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prohibit euthanasia under general homicide laws. The federal government does not have assisted suicide laws. Those laws are generally handled at the state level.*

가

모교 소식 SNU NOW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 1990년 설립되었습니다. 발전기금은 기부금 모금을 통해 연구·학술활동, 장학사업, 인프라 확충 등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총장께서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4년 이후 약 6,000명의 기부자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1,450억 원(2015.12.31. 기준)을 모금하였습니다. 장학, 연구, 학술, 교육 분야의 다양한 기부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기부자의 50% 이상이 동문이며 모교 발전에 동문들께서 기여하는 그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문모금 확산을 도모하고자 최근 한국의 총동창회와 동문행사 공동 개최 및 동창회보 공동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사업

##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연혁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총동창회간의 관계 증대와 더불어 동문들께서 학교 소식에 귀 기울이고 학교발전에 동참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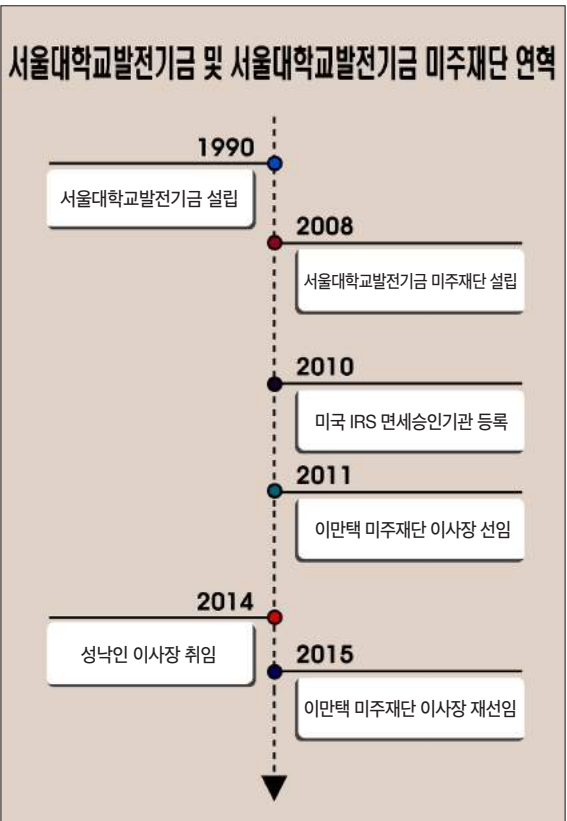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은 2008년 한국의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설립한 공식 자매기관으로서, 미국에 계시는 기부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투명하게 서울대학교를 지원하실 수 있도록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만택 이사장을 중심으로 총 5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대 기획처장, 서울대발전기금 상임이사 및 본부장이 이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0년 미국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면세승인기관(501-C-3) 자격을 부여받아 미주재단을 통해 서울대학교에 기부하시는 금액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기부자와 동일하게 서울대학병원, 각종 학교시설 이용 등 예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주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총 450만 달러, 한화 약 55억원이 모금되었으며 장학금, 다양한 연구 기금, 교수 기금, 시설물 기금 등 전역 서울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과 미주를 포함한 해외에 계신 동문님들의 사랑과 후원을 통해 초일류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교 7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SNU with People), 서울대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고(SNU with Pride), 세계무대로 새로운 도약(SNU with World)을 이루어 내야



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다음 70년에도 겨레의 대학으로 미래 한국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서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료: 이효원 교수, 모교발전기금 상임이사)



### 카카오톡 성공 뒤에는 산업공학이 있다

Q: IT하면 컴퓨터공학이 먼저 떠오르는데 산업공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A: 컴퓨터공학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주력합니다. 반면 산업공학은 시스템 혁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만든 김범수 의장도 산업공학과 출신입니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컴퓨터공학이 가장 필요했겠지요. 하지만 수많은 사용자와 만나고 그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수록, 산업공학이 빛을 발합니다. 매일 친구들과 단체카톡방에서 얘기하죠? 이 기능을 모바일 메신저 최초로 제공한 것이 카카오톡입니다. 또 문자와 메시지를 합친 대화창도 카카오톡의 특징이죠. 바로 이렇게 사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산업공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교수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공급망 관리’는 어떤 분야인가요?

A: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야 하고, 이를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필요합니다. 완성된 제품을 옮기는 물류업체와 휴대폰 대리점, 인터넷 쇼핑물 같은 판매업체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급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공급망을 제대로 만들어 이윤을 가장 크게 거두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장에 기계를 배치하는 문제에서부터 상품을 얼마만큼 만들지, 또 생산한 물건을 어떻게 옮길지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 잠수함 공격에서 스마트폰까지

Q: 산업공학과는 무엇을 하는 과인가요?

A: 산업공학은 크게 네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생산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생산관리 분야가 있고,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 제품에 반영하는 인간공학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과학 분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이 독일군 잠수함 U보트를 공격할 때 어느 위치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는지 연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

과학동아 서포터스인 경기 안양외고 과학실험동아리 SM (Science Master)이 문일경(공대 80) 산업공학과 교수를 만났다. 문 교수는 “카카오톡의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해 애플 등 여러분과 친숙한 기업의 CEO들이 모두 산업공학과 출신”이라고 말했다.

로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데이터마이닝과 기술경영 분야가 있습니다. 데이터마이닝에서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의사결정에 반영할지 연구하고, 기술경영에서는 특하나 기술정책을 개발합니다. 금융공학과 정보공학과 크게 보면 여기에 속합니다.

Q: 인간공학은 기계공학이랑 더 가까워 보이는데 산업공학에서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공대 카페 - 산업공학과

A: 로봇이나 비행기 등을 만드는 데는 기계공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일럿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든 계기판입니다. 이런 인터페이스가 산업공학에서 늘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메뉴와 버튼을 배치해야 사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인간공학은 산업공학의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 현대자동차, 애플 CEO도 산업공학 전공

Q: 앞으로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산업공학 분야는 뭘까요?

A: 아마 데이터마이닝 분야일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해 제품이나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 후기가 불만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실제 기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이용하고 있지요. 서울시 심야



문일경 서울대 교수와 경기 안양외고 과학실험동아리 SM.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진행자 최정문(서울대 산업공학과 4학년)

## 하지마비 장애 딛고 서울대 합격

“사회 변화시키는 경제학자 될래요” - 김해외고 윤혁진군



“장애 때문에 온갖 차별을 겪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건 경제학도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교 3학년생이 하지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서울대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를 낳고 있다. 주인공은 201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Ⅱ에 합격해 다음달 입학할 앞두고 있는 김해외고 3학년 윤혁진 군. 윤군은 5세 때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돼 하지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역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요골음증(척추측만증)이 찾아온 것. 윤군은 “척추요골음증 때문에 2009년 수술을 하고 1년을 쉬었지만 중·고등학교 내내 불편했고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 적도 여러 번이었다”고 전했다.

온전하지 않은 몸으로 공부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경제학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는 “대부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학교 체험학습이나 문화활동 등 거의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며 “장애인으로서의 경험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경제정책을 통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꿈을 향한 윤군의 도전은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임에도 윤씨에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군은 잠자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이를 극복했다. 특수목직고에 다니며 하루 5시간만 잠을 자고 남은 시간은 공부에 매진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서울대 입학’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됐다. 윤군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보다 더 불편한 몸매에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꿈을 키워온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합격 소식을 듣고도 팬스레 미안했다”며 “입학하면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성 있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매일경제>

## 인턴으로 보낸 알찬 겨울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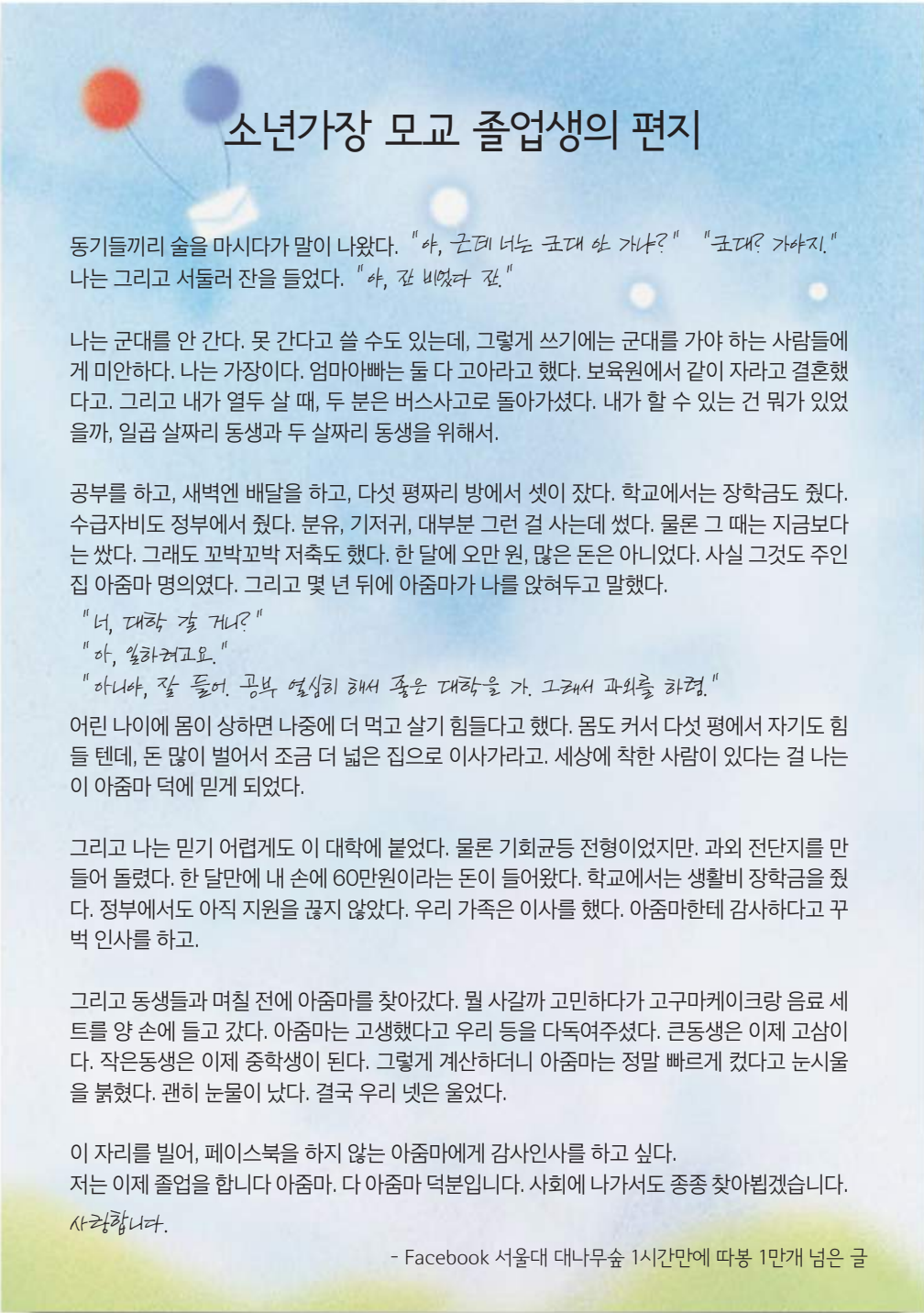


방준휘 (전기정보공학 12)

이런 겨울 약 한 달 동안 모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경험했다. 아직도 첫 출근, 그때의 쭉쭉 찢어졌던 양복 차림을 기억한다. 패기에 가득 차 있지만 어리숙함이 물씬 배어나 초차 티를 감출 수 없었던 그 모습. 어릴 적부터 어릴땐이 가지고 있던 ‘직장인=어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 때문일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만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나의 환상은 좌절됐다.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인사 잘하는 법부터 새로 배워야 했고 학교에서 나뉘는 법부터 익혀야 했고 회사의 양식에 따라 보고서 쓰는 법까지 공부해갔다. 지켜야 할 보안 규정도 엄격했다. 정해진 기간의 절반이 훌쩍 지나서야 그것들을 흉내 내고 이해할 수 있었다.



## 소년가장 모교 졸업생의 편지

동기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말이 나왔다. “아, 군데 너는 군대 안 가냐?” “군대? 가하지.” 나는 그리고 서둘러 잔을 들었다. “아, 잘 비었어.”

나는 군대를 안 간다. 못 간다고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쓰기에는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가장이다. 엄마아빠는 둘 다 고아라고 했다. 보육원에서 같이 자라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내가 열두 살 때, 두 분은 버스사고로 돌아가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을까, 일곱 살짜리 동생과 두 살짜리 동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새벽엔 배달을 하고, 다섯 평짜리 방에서 셋이 잤다. 학교에서는 장학금도 썼다. 수급자비도 정부에서 썼다. 분유, 기저귀, 대부분 그런 걸 사는데 썼다. 물론 그 때는 지금보다는 썼다. 그래도 고박고박 저축도 했다. 한 달에 오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다. 사실 그것도 주인집 아줌마 명의로였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아줌마가 나를 얹혀두고 말했다.

“너, 대학 갈 거?”  
“아, 일하러고요.”  
“아니야, 잘 들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 그래서 과일을 하려.”

어린 나이에 몸이 상하면 나중에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다. 몸도 커서 다섯 평에서 자기도 힘들 텐데, 돈 많이 벌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줌마 덕에 믿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믿기 어렵게도 이 대학에 붙었다. 물론 기회균등 전형이었지만, 과외 전단지들만 들어 돌렸다. 한 달만에 내 손에 6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학교에서는 생활비 장학금을 썼다. 정부에서도 아직 지원을 끊지 않았다. 우리 가족은 이사를 했다. 아줌마한테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

그리고 동생들과 며칠 전에 아줌마를 찾아가다. 월 사갈까 고민하다가 고무마이크랑 음료 세트를 양 손에 들고 갔다. 아줌마는 고생했다고 우리 등을 다독여주었다. 큰동생은 이제 고삼이다. 작은동생은 이제 중학생이 된다. 그렇게 계산하더니 아줌마는 정말 빠르게 컸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괜히 눈물이 났다. 결국 우리 넷은 울었다.

이 자리를 빌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아줌마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저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아줌마. 다 아줌마 덕분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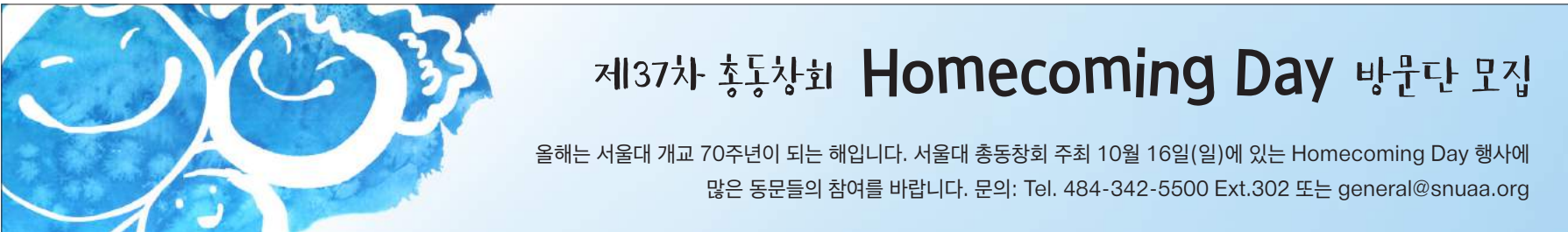
- Facebook 서울대 대나무술 1시간만에 따봉 1만개 넘은 글

내가 일했던 부서는 놀랄 만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맡은 일들을 최대한 조율하고 있었다. 내가 갖고 있던 회사생활과 인턴에 대한 생각은 영화 ‘인턴’, 드라마 ‘미생’ 두 편이 전부였기에 주인공처럼 사소한 잘못에 구박받고 잡무에 시달리는 회사생활을 상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료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조직문화는 금세 그것들이 군격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번 인턴생활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함께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쁜 일인지 말이다. 학교에서 무언가를 함께 해볼 기회는 3~4명으로 구성된 팀 프로젝트 정도가 거의 전부다. 그조차 과목에 따라 제한적이다. 거대한 집단, 수많은

아직도 양복 차림은 어색하지만 하다.

그러나 이번 인턴생활에서 얻은 값진 경험들이 졸업 후 어떤 일을 하든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또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소중한 잣대가 돼 주리라 믿는다. <대학신문 기자>



## 제37차 총동창회 Homecoming Day 방문단 모집

올해는 서울대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주최 10월 16일(일)에 있는 Homecoming Day 행사에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Tel. 484-342-5500 Ext.302 또는 general@snuaa.org



# My Story &

*My Story &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임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절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또 다시 이곳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여러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이메일 news@snuuaa.org로 동문님의 그리운 과거사진 한 장과 현재사진 한 장 함께 보내주세요. <담당: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최은관(IA, 상대 64)

1. 상대를 졸업하고 더 배우고 싶은 생각에 72년에 휴스턴 대학에 갔다. University of Iowa에서 경제학 박사 가 되었고, 지금은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가르친다. 92년에 경제 학술지,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95년에는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를 창간하여 편집장으로 20년간 근무했다. 노벨 경제상 수상자인 Paul Samuelson은 이 저널에 논문을 3편이나 실었고, Paul Krugman, Robert Mundell, Joseph Stiglitz도 RIE나 RDE에 논문을 발표했다. 현재는 Frontiers of Economics and Globalization 시리즈의 편집장으로 있고, 시리즈의 11권에는 노벨 수상자인 Kenneth Arrow가 경제 발전에 관한 논문을 기고하였고, 또한 노벨 수상자 Robert Solow가 서언을 쓰기도 했다.

2. 어떤 상황에도(다 실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경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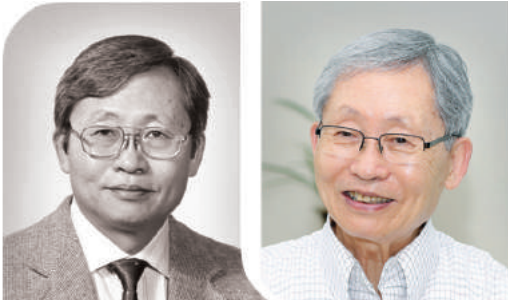
3. 이 나라 사람들은 공통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에 와서,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등지에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한국에만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좁은 견해도 세상을 보았을 것이다.

4. Urantia Book(유란시아서). (성경 외에) 나를 제일 많이 가르친 책.

5. 물 따로, 밥 따로. 먹고 한 시간 지나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된다. 어렸을 때부터 위장이 좋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이 건강법을 실천하고 나서 위장이 튼튼해졌다. 식사 중에 물이나 주스를 마시면 장 안에서 위산이 묶여져,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썩게 된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잘 씹게 된다. 베개를 베지 않으면 짧은 시간에 피로가 회복된다. 이 두 습관에 익숙해지는 것은 한 달이 걸린다. 머리를 많이 써야 할 경우에, 낮잠을 30분 자면 좋다.

6. 7개 외국어(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의 기본을 공부해 두었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한다. 할 수 없이, 이제 하자니 틈을 내기가 어렵다.

7. 감동을 주는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늘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정진수(CA, 공대 56)

1. 1961년 공대졸업생들에게는 취직의 기회가 활짝 열렸다. 새 정부가 모든 취직은 공채시험과 병역필수를 필수조건으로 규정한 덕분에, 일곱 군데 입사시험을 보고 한국전력 1기로 입사 대표 신고를 했다. 1962년에 캘리포니아 대학(UC) Berkeley에서 연구 조교로 선박유체역학 석사과정을 시작, 1964년에 워싱턴의 해군선박연구소(DTMB)에 첫 취직. 1969년에 미시간(Michigan)대학에서 응용역학(applied mechanics) 박사학위 수여(Laser Doppler anemometer 개발). 그 때만 해도 Laser를 갖고 있는 대학이 손꼽을 정도일 때였다.

1969년~1970년의 경제불황으로 안정된 직장을 찾아 Esso(지금의 ExxonMobil) 휴스턴 연구소를 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대학에 연구나 교과과목으로 없던 부유식 해양석유시생산 융합기술개발팀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 새 기술개발의 기초를 닦은 후, 더 새로운 기술개발을 찾아 날씨 좋은 샌프란시스코 근교의 록히드미사일(Lockheed Missile Space Co.)의 R&D Division으로 전직. 또한 이유는 귀국할 계획도 없어서 태평양쪽으로 옮긴 것이다.

록히드에서는 내 생애 제일 큰 기술개발을 맡게 되었다. 대형국제석유회사 콘소시엄(consortium)에서 6,000미터 해저의 망간단과 채광생산 및 석유생산의 시스템과 기술을 개발하는 5개년 프로젝트 팀을 이끌었다. 그 당시 해양석유기술이 100미터 물 깊이였을 때였다. 5년 내에 6,000미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재래 콘셉트로만은 도저히 불가,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 5년 예산을 확보. 록히드와 유럽의 합동팀 구성. 유럽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도전장을 접고 1980년 대학으로 옮겼다.

1980년 Colorado School of Mines 정교수로 취임. 2000년에 조기은퇴. 내가 조직하고 끌여온 해양·극지학회와 50개국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의 조직을 강화하는 데에 나의 자원봉사시간을 다 쏟아 부었다. 나에게서는 연금보다 도전(Challenge)이 더 중했었다. 공대 재학 시에 아세아에서 첫 번째로 수중익선(Hydrofoil boat)을 설계, 실험, 제작. 이 도전精神和 무(zero base)에서 시작이 내 머리에 지금까지 박혀있다.

*My story & your history*는 모든 동문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면 news@snuuaa.org으로 연락주세요.

2. 나와 아내(문리대 59)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생활 철학이다.

3. 1962년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받은 인상은 미국은 큰 나라구나. 교수나 학생이 큰 테두리에서 생각하고 더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남을 배려해주는 태도가 인상에 남았다. 나의 첫 목표는 한국의 낙후된 모든 어선을 개량할 공부였는데 와보니 그런 과목은 없고 설계·연구를 거의 수학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어선의 꿈은 접고 세상 안목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국에 있었으면 대학원 끝내고 어디로 갔겠지. 내가 1973~74년에 KAIST에 해양·선박공학과 설립제의를 받고 귀국결심을 했을 때, 특히 모교에서 지나친 반대운동을 했던 생각이 떠오른다. 새로운 세계주제를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젊은 세대에도 바람직해졌다.

4. 특별한 취미는 없고, 있다면 삼화와 붓글씨를 가끔 해왔다. 1970~1980년 동안 유럽 거의 각 나라에 출장을 수없이 다녔다. 출장 중 시간 날 때마다 옛날 조상들의 흔적을 찾는데 관심도 두었다. 상대회사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그 때마다 나의 편견이 좀 틀렸구나 깨달은 것. 시간 날 때 책 읽는 것. 영화와 드라마 보는 것이 근래 취미다.

5. 2000년대 Sunny California로 온 후 매일 ISOPE 사무실 주변을 걷는 운동을, 그리고 근래는 중국식 Tai Chi를 주 1회. 1980~1999년에는 하루 거의 16시간 일로 건강 관리할 시간이 없었다. 낮에는 직장. 저녁에는 국제봉사조직(학회 "ISOPE")에 온 힘을 쏟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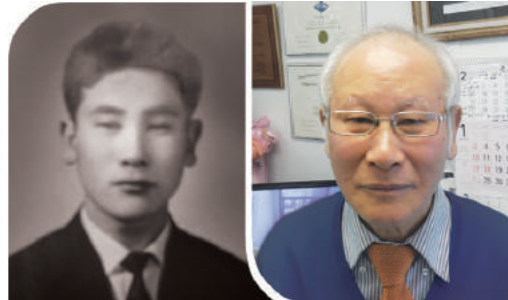
6. 모교에서 새로 와서 학생으로 시작한다면, 1~2년 외국대학에서 수강할 수 있으면 더 넓은 세계의 안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나의 Bucket list는 ISOPE과 봉사정신을 모두에게 장려하는 것.

7. (a) Recommend news items about and participation of more younger alumni members as well as non-alumni in the U.S. (b) As all have English keyboard, short/brief news item in English may attract more news readers and contributors.

# Your History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그동안 참여해주신 동문들께 감사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수호(NY, 보건대 69)

1. 1975년 당시 New Jersey 'Kim 재활병원'(원장 Ki Ho Kim MD)의 초청으로 도미하였다. 도미 전 경희대 한의과대학 및 동대학원(한의학 석사) 졸업 후 경희대 한의대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71년 서울대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을 졸업하고 1983년 California State의 SAMRA University of Health Science에서 Oriental Medicine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시 미국이 경제발전으로 개인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사고 후 재활과 통증 치료에 대한 침술치료의 관심이 높아져 뉴저지 Kim 물리재활병원에서 여러 분야의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다. 1976년 뉴욕주 침술면허를 받고 뉴욕에 한인의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국의료원 3년, 중앙의료원에서 36년 진료했다. 1998~2001년 코넬 의과대학 New York Hospital Medical Center of Queens와 New York Flushing Hospital Medical Center of Queens의 물리재활의학과 산하의 침술과 책임자로 진료했다. 현재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Connecticut State의 University of Bridgeport 한의과 대학원 교수로 Clinic Director와 진료 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겸임교수로 강의와 Clinic에서 임상지도를 하고 있다.

2. 삶의 철학은 중용의 도를 지키며 성실하게 삶을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화여전에서 한문과 도덕을 강의했던 아버님의 영향으로 한문에 관심이 많았다. 경희대 교수로 재직 중 외국에서 온 많은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 원서, 영어로 번역된 중국의 한의학 서적들을 보고 미국에 가서 더 넓은 세계에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뜻을 굳혔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많은 전공 서적들도 공산국가의 불온 서적으로 분류되어 볼 수가 없었다. 의료 학술 서적에도 모택동 어록이라 쓰여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

70년대 후반에 닉슨의 중국과의 핑퐁 외교로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며 중국의 많은 한의학 서적을 미국에 있으면서 접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본인과 공저(최용대 경희 한의대 침구과 주임교수)로 8권의 한의학에 대한 침구학 책을 편찬하였고 이 책들을 한국의 한의과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

3.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그대로 경희대 한의과 대학에서 교수로 후학양성을 했을 것 같다. 이곳에서 많은 다른 인종의 환자진료의 경험과 한의학이 서양의학과는 절충 보완으로 통증치료, 불임, 알러지, 스트레스 우울증, 비만치료 등 여러 분야에 응용되는 폭넓은 진료경험을 갖지 못했을 것 같다.

4.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 영화 보리수, 닥터지바고, 감명깊은 영화이고, 음식은 야채를 좋아한다. 여행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많이 다녀보지 못해서 앞으로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5. 특별한 건강관리법은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장거리 수영인데, 요즘은 수영할 기회가 없고 잠자기 전에 명상 및 복식호흡을 한다.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몸의 모든 기를 배꼽 밑의 하복부(하단전)로 보내어 수면에 도움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즉 심신의 평화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6. 다시 학창시절로 간다면 동서양 철학과 동양고전을 공부하고 싶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치 못한 오천년의 한의학과 히포크라테스 이후의 서양의학과 잘 병행시킬 수 있는 과학, 신학, 철학의 공존성을 공부하고 싶다.

Bucket List는 그동안의 100여편의 학술논문을 잘 정리해서 학술적으로 한의학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편찬하고 싶다. 또한 한의학이 예방의학 차원에서 발전이 있도록 연구를 더 하고 싶다. 요즘 강의를 한문 원서로 가르치는데 충분치 못한 나의 영어에도 불구하고 미국학생들이 수업 후 그 한문 원서를 해야겠다는 뜻을 강요하게 배우는 것을 보고 좋은 교재를 후학양성을 위해 만들고 싶다.

7. 동문들의 친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뉴욕지부 송년모임에 거의 30여년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세계적인 Opera 가수인 Maria Callas와 영화 감독인 Otto Preminger 같은 유명인을 치료할 기회도 있었다. 서울대 동문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미국인들에게 한의학, 침술학의 효과를 말하여 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 동문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갖고, 이민사회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동문회가 되길 바란다.



신정택(NJ, 약대 52)

1. 1960년 콜롬비아 대학 약대 조교 장학금을 받고 도미, 1969년 Rutgers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Bristol Myers Squibb Co.에서 30년 근무 중 약 10여개의 미국 및 국제특허를 취득했고, 1990년에는 우수 연구 업적상을 받았다. 2005년 퇴직 후, Revicci Consulting 설립. 피부계통의 성분, 제품개발에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피부계통의 특수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현재 제한제(Antiperspirant)에 관련된 스페셜 특허가 10여개 있다.

2. 항상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와 연결된 계획을 세워서 step by step 발전시켜가며 살았다. 화학을 좋아해 약학을 전공하게 되었으며, 과유불급의 원리를 삶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 70년대 뉴욕 브롱스 한인교회에서 후배 약사들을 위해 뉴욕주 약사시험 준비 강의를 한 것도 보람있는 일로 기억된다.

3. 한국에서 근화계약의 연구소장으로 있었다. 만일 유학을 안 왔으면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가 되었을 것 같다. 미국의 첫 인상은 지금도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 보았던 뉴욕시의 야경이 잊혀지지 않고 선전군담계 전쟁 후의 한국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생활수준 차이를 보면서 우울했다. 지금 급성장한 한국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

4.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대학에서 공부하여 교육학 석사까지 마친 미국 공립 학교교사였던 아내의 지도(?) 아래 온 가족이 유럽 이탈리아 등 세계 모든 곳을 거의 다 다녀보았다. 특히 오페라를 좋아해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정기적으로 관람했다. 예전에는 고기우주의 식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점점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다.

5. 뉴욕 테니스클럽 1대 회장이셨던 장인의 영향으로 아내와 테니스를 열심히 쳤고 이제는 골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스키, 골프, 테니스 등의 취미생활이 내 건강관리의 기본이다.

6. 과거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캠퍼스 생활을 인조이하고 싶다. 약대는 전시 중엔 부산에 있다가 을지로 6가로 올라와서 거기서 졸업을 했다. 의대 동생동이나 관악 캠퍼스같이 대학다운 건물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Bucket List는 건강하게 살면서 손주들이 대학 입학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보고 싶다. 모든 할아버지들의 바램과 같다.

7. 유학생이 드물던 1964년에 뉴욕지부 약대 동창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뉴욕 동문회 골든클럽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이민 사회에서 동창회의 활동은 좋은 활력소이다. 인생은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동시에 맛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돕고 사는 서울대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 동창회보에서의 여러 동문과의 소식을 듣는 것이 감사하다.

## 남가주 : 신구회장 이·취임식



지난 2월 6일 DoubleTree by Hilton에서 2016년 서울대학교 남가주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가 20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개회선언 후 미국가독창(서영란, 음대75)과 애국가와 교가제창. 이어 박윤수(초대 미주총동창회장, 문리대 48), 손재욱(현 미주총동창회장, 가정대77), 이만택(미주재단이사장, 의대51), 이철수(서울대기획처장, 법대교수78), 이효원(서울대발전기금상임이사, 법대교수83), 김수욱(서울대발전기금상임본부장, 경영대교수85) 등의 내빈 소개가 있었다. 다음 양민총무국장(공대77)의 사업보고, 박제환재무국장(문리대75)의 재무보고가 있었고, 이만택 동문과 서울대코랄에서 남가주총동창회(박혜옥, 간호대69)에 기금을 전달했다.

박혜옥 총동창회장은 이임사에서 “오늘 남가주총동창회 정기총회와 새 회장단의 출발을 축하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선후배동문들과 내빈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문님들의 성원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봉사로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총동창회를 이끌어 갈 새 회장단에게도 동문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고, 이임회장 단에게 감사장을 증정하고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다.

다음은 민일기 신임총무국장의 사회로 계속되어, 김병연(공대68) 신임회장이 박혜옥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고,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선,후배 동문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 기쁩니다. 또한 존경하옵는 전임회장님들을 비롯하여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님들, 그리고 모교에서 이철수 기획처장님, 이효원 발전기금상임이사님과 김수욱 본부장님,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미주총동창회의 손재욱회장님과 미주발전재단의 이만택 이사장님 등, 많이 참석해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 신구회장 이·취임식

남가주총동창회는 1974년 창립 이후 41년 동안, 15개 단과대학의 총 등록회원 2,000여명으로 성장해 왔으며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모교발전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각종 행사를 시행할 것이며 발전기금재단과 남가주총동창회 합동기금 모금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 남가주총동창회의 40여년 발자취를 정리하고 장학위원회를 조직하여 동문가족과 모교에서 유학오는 후학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동문들에게 뱃지달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선후배동문 여러분들이 협조 속에 모든 역량을 다해서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동창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축하연주는 Double Bass전수경(음대06)이 “Bot-tesini”의 “Elegy”와 “Nel cor piu non mi sento”를, Piano제갈소망(음대02)이 “F. Liszt”의 Mephisto Waltz를 박력있게 섬세한 연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

다. 마지막 곡은 두 연주자와 Violin조가현(음대 02)의 Piano Trio, “Piazzola”의 “Four Sea-sons of Buenos Aires”였는데, 혼신을 다한 연주자에게 앵콜박수가 빗발쳤다. 다음, 신임회장단 발표와 인준, 손재욱 미주총동창회장과 이철수기획처장의 축사와 이효원 발전기금상임이사의 인사말 및 서울대 현황소개 후에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다.

2부 순서로 이어져 “Peter, Joy and Jenny Trio”〈백정현(음대66), 박혜옥(간호대69), 김인중(농대74)〉이 “Puff the Magic Dragon” 외 두 곡을 노래하여 큰 환호를 받았다. 이어 단과대 대항 장기대회에서 약대 이명일(약대72)동문이 Country Song을, 음대 백정현(66), 유재각(72), 박혜란(73), 서영란(75) 등 8명이 “못생기게 만들어 주세요.”를 춤으로 보여주었는데, 여자로 분장한 백정현동문의 춤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폭소를 터뜨리게 하였고 장기대회 1등상은 음대에게 돌아갔다. 이어 초청사회자 최민이 이끄는 심어용과 퀴즈, 게임 등으로 이어졌고 래플티켓 당첨자는 다음과 같다. 1등상 한국왕복 비행기표(김병연 신임회장 제공)는 장정용(미대64), 2등상 55인치 TV(박혜옥 이임회장 제공)는 장진성(약대66), 3등상 Cash \$500(성주경수석부회장 제공)는 김경애(미대83)동문이 당첨되었다. 그 외 상임이사 및 단과대회장들이 많은 상품을 기증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원이나 나와 흥겹게 춤을 추는 가운데 서로 악수를 주고 받으며 신년회는 끝났다.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사진:고정범(법대 79)〉



## 뉴욕 : 약대 설 파티

대뉴욕 약대 동창회(회장: 이대연)에서는 지난 2월 27일(토) 후라상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80여 동문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 축하 동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대연(약학과 65년)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민준기 뉴욕 총동창회장의 축사와 이준행 뉴욕 골든클럽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윤정옥(약학과 50년) 동문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유홍의 시간을 즐겁게 가졌다. 이날 동문의 밤에서는 최구진(약학과 54년) 동문과 고강희(약학과 56년) 동문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다. <글: 김창수(약대 64) 이사장, 사진: 손갑수(약대 59)〉



## 시카고 : 제1차 임원회

시카고지역 동창회(회장 정승규)가 지난 13일 장기남 동문 자택에서 제1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엔 50여명의 임원, 이사 및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2016년도 행사계획, 예산안 심의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대 동창회는 장학생 선발, 친목 야유회, 골프 친목모임, 연말 파티, 주소록 발간 등을 계획 중이다.



## 워싱턴 : 설날 행사 / 장경태 회장 귀국편지



워싱턴지역 동창회(회장 장경태)는 지난 6일 낮 우레옥에서 설날맞이 행사를 가졌다. 40여명의 동문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마련된 떡국을 함께 들면서 즐거운 덕담과 인사로 서로 교제를 나눴다. 백운 동문이 새해 덕담을 전했는데, 정치와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 선거당시 경기에 따라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유리하다는 통제가 있다고 했다. 장경태 동창회장은 년로하신 선배님들이 년말행사가 발행사라 참석하고 싶어도 많이 참석하시지 못했는데, 이렇게 낯시간에 설날행사를 참석하실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하면서, 오늘 날씨가 겨울날씨 답지 않게 화창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했다. 동문들은 식사 후, 미리 준비한 게임으로 푸짐한 상품을 나눠 가지며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워싱턴지부 장경태(사대 75) 회장이 3월초 한국 네오티스(자동차 부품생산)의 총괄부사장으로 취임하며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병신년 원단에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갑자기 한국에 있는 회사로 취업하게 되어 수주내 출국하게 됩니다. 이번이 나가면, 3년 내지 5년을 한국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년로하신 부모님들을 가까이 에서 모시지 못한 실적 부담이 늘 있었는데, 이번이 부모님들께 잘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업은 아내에게 일임하고 또 자식들이 남아 있어 자주 광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열어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모두 감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 2006년 10월 워싱턴중앙일보사장으로 부임한 후, 지난 9년동안 중앙일보와 개인사업(Happy Seeds)에 몰심장면으로 보살펴 주신 교계 어르신들, 사회 각계, 학교 동문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이번 기회를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훌쩍 떠나는 것이라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다시 버지니아를 찾을 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아 있는 일기 기간동안 해야 할 일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섬긴 임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모쪼록 차기회장님이신 안선미 동문과 현 임원들께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만나 뵈 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2016년 2월 8일

장 경 태 드림

## 휴스턴 : 팔순(산수연) 잔치

지난 12월 19일 서울가든에서 휴스턴 서울대 동문회 주체 연말파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최용천(의대 53) 동문의 팔순잔치(산수연)와 함께 무료로 연말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후 최 동문 팔순잔치 기념 수건을 선물로 나



누어 주었습니다. 최인섭 회장님의 인사말씀으로 파티가 시작되었으며 김동수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팔순잔치에 동문들의 생일축하 노래에 이어 최용천 동문 부부께서 촛불을 끄셨습니다.

식사시간을 가진 후에회계로 봉사하시는 황찬주 동문께서 2부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동문들의 소개시간을 학번순으로 가지면서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2부 게임은 황찬주 동문께서 의상과 장학퀴즈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직접 준비해 주시는 수고를 맡아주셨고 진행도 재미있게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진사가 등쪽에 계속 위치한 관계로 사진에는 거의 출연하지 못하였습니다. 게임진행시 총무로 봉사하시는 김정환 동문께서 문제를 읽어 주셨습니다.

게임은 먼저 그룹을 만들고 그룹이름과 구호를 만든 후 문제를 맞힌 팀이나 개인이 선물과 다음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객관식문제가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모두 주관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팀들이 즐거운 시간과 선물들을 들고가는 연말파티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신 최우창 작가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앞으로 있을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미리 알립니다.

### 1 록키마운틴 : 통증 세미나

3월 5일 오후 3시에 가동 빌딩 문화 센터(11000 E. Yale Ave. Aurora CO 80014)에서 우리 지역 서울대 동창회 주체로 의학 강좌, “통증 세미나”를 갖게 되며 이 모임은 한국분들의 필요에 따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게 예정되었습니다.

### 2 아틀란타 : ‘솔리데오 합창단’ 창단 연주회

솔리데오(Soli Deo) 합창단이 창단 후 첫 공연을 갖는다. 솔리데오 합창단은 오는 21일 오후 6시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에서 첫 연주회를 갖고, 지역사회에 합창단 창단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지휘는 성악가 채혁씨의 지휘하고, 반주는 서울대 기악과와 뉴욕 예술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한 최자현 동문이 맡는다.

솔리데오 합창단은 순수 기독교합창단으로 솔리데오란 ‘오직 주님’이라는 뜻이다. 지역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공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남가주 박영구 LA Fine Art Show 작품

‘김치’로 표현한 한민족 역사



LA아트쇼에서 한미커뮤니티 미술가협회 박영구 동문

1994년부터 시작해 22년의 역사를 가진 LA Fine art Show에 오렌지카운티 미술가협회의 박영구(미대 84) 동문이 김치를 소재로 한 작품 두 점을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 서양화와 출신 현직 화가인 박 동문이 출품한 그림은 김치의 강렬한 색채를 부각시킨 추상적인 배경에 자화상을 결합한 것이다.

박 동문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민족 고유의 반찬인 김치는 조형적 측면에서도 작품 구성에 손색이 없다”며 “반복되는 수난을 극복하며 발전한 우리의 역사와 여러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고 발효된 뒤에 제맛을 내는 김치의 유사성을 캔버스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김치의 이미지로 구성된 작품이지만 박 동문은 작품 제목을 ‘Vegetable(채소)’로 달았다. 박씨는 “김치란 제목은 타민족이 이해하기 힘들고 내 그림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되길 바라기 때문에 채소란 제목을 붙였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치의 이미지가 관람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동문에 따르면 관람객의 반응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작품에 구현된 비대칭적인 김치의 형태와 움직임에 보고 쓰나미나 지진을 연상하고 어떤 이는 붉은 색을 피와 결부시켜 종교적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박 동문은 “내겐 이 그림이 김치를 매개로 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상”이라며 “앞으로 김치와 관련된 그림을 더 그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주중앙일보>

## 한국 전통 ‘차’ 문화를 통한 내면 치유

김로이(의대 91) 학아재 원장 뉴욕 방문 코리아소사이어티서 다도 강연

김로이(사진) 학아재(學我齋) 원장은 다도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강연하는데 본업은 의사다. 그는 자신을 ‘인문 의학자’라고 불렀다. 인문학이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해나간 학문이라면 인문 의학은 스스로 몸과 마음의 불균형을 느끼고 치유해나가는 의학적 접근이라는 것.

김 원장은 11일 맨해튼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한국의 차를 알리는 다도 강연을 했다. ‘나를 배우는 곳’이라는 뜻의 학아재는 창덕궁 옆에 위치한 인문 문화 공간으로 클리닉과 갤러리,카페가 한 건물에 있는 이색 병원. 이 곳에서는 매달 새로운 주제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다도를 비롯해 동·서양 철학,미학,의학 등 주제로 진행되는 명상 프로그램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가 열린다.

뉴욕에서 이틀간 한국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해 사비로 학아재 다도 사범 등 프로그림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한 그는 “다도를 대부분 일본이나 중국의 전통으로만 생각하는데 한국에도 법제화되지 않은 우리만의 차 문화가 존재해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한 자주 뉴욕을 방문해 한국의 차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그가 차에 빠져든 이유는 의학과 맞닿아 있었다. 서울대 의대 졸업 후 청담동에서 노화방지클리닉을 운영하던 그는 회의감이 들었다. 김 원장은 “호르몬 주입 비타민 알약 일시적인 효과를 내는 보톡스만으로 과연 젊어질 수 있을까 이제 올바른 노화 방

지 의학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 그는 동양의학에 돌구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낮은 나이에 경희대 한의대에 들어갔다. 외과적,화학적 치료만이 아니라 한의학에는 병이 생긴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스스로 치유의 힘을 키우는 정신이 있었다는 그는 “한의학을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레 ‘차’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차는 단순히 마시는 것을 떠나 차 잎을 우리며 정신을 수양하고 내 몸을 양생하는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이 다도를 통해 ‘내면의 나’와 ‘영성’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믿는 이유다.

차를 내리며 전통 문화와 인문학을 전하는 의사로서 그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 고유의 차와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미주중앙일보>



## 소프라노 이운정,

스탠포드 심포니 연주회에서 솔로



베이지역에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운정(음대 04) 동문이 2월 26, 28일 스탠포드 심포니가 연주하는 뽀랑의 ‘글로리아’에서 솔로로 출연한다.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를 거쳐 오하이오 신시내티 음대에서 석, 박사과정을 마친 이 동문은 오페라 기적의 의사(Bizet), 달



의 세계(Haydn), 오르페오(Monteverdi) 등에 출연한 바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SF 지역 우승, 탕글우드 음악센터 올해의 펠로우쉽 Grace B. Jackson 상 등을 수상한 바 있고 MBC 드라마 선택여왕의 ‘메인 타이틀’, ‘미실테마’를 부른 주인공이기도 하다.

현재 Evergreen Valley College에서 성악 강의,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Alameda의 뮤직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이 동문은 베이지역에 와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며 아직도 부단히 커리어를 쌓아가야 하는 성악가이지만 이제는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음악이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데에 의미를 더 두는 삶을 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3월 11일 금요일 저녁(7시)에 팔로알토 Grace Lutheran Church에서 서울예고 동문에서 후원하는 리사이틀을 서울예고, 서울대, 신시내티음대 동문 선배인 소프라노 이경민과 안영실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듀오 리사이틀을 가질 예정이다.

## ‘불교사상사 전개와 원효’ 특강

UC버클리서 조은수 모교 교수



신라의 고승 원효(元曉 617-680)가 불교사상사에 차지하는 비중을 재조명해보기 위한 특강이 4일 버클리대학 도우 도서관에서 열렸다.

버클리대학 한국학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특강에서 강사로 나온 조은수(약대 78) 모교 교수는 “한국 불교사에서 원효를 가장 중요한 사상가로 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그의 수많은 저술이 한국 불교사상의 깊이와 폭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이 교수의 소개로 강단에 선 조은수 교수는 “1980년대와 90년대의 많은 연구를 통해 원효사상의 핵심은 일심사상과 화쟁으로 나타났다”나 그의 사상의 전체적 모습은 아직 다 드러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효의 저술속에는 인도의 아빌다마, 유식, 여래장, 중국의 화엄, 노자와 장자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이 문헌에서 도출되고 있어 원효를 한국 불교 맥락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그의 사상적 외연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사상에 대해 새롭게 알려진 지식을 배경으로 원효의 가치를 새롭게 진단해 보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두 시간 동안에 걸친 특강에서 조 교수는 “원효는 당시 불교 교리의 사상적 맥락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분석적이고 철학적인 논변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사상 전개의 방향설정에도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특강을 한 조 교수는 버클리대학에서 불교철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시건대학 인어문화학과 조교수를 거쳐 지난 2004년부터 모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하택집 블룸버그 석좌교수 강연회

존스홉킨스대 대학원 학생회 주최

존스홉킨스 대학원 한인학생회(회장 이봉희)는 한국인 최초 존스홉킨스대 블룸버그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하택집 교수(물리대 86, 사진)를 초청해 오는 23일(화) 강연회를 연다.



하택집 교수는 미국과학재단상, 미국물리학회 석학회원(fellow), 미국국립과학원 회원, 미국예술과학원 회원, 하워드 휴즈 의학 재단(HHMI)의 올해의 생명의학 과학자 등에 선정된 세계적 석학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으로 일리노이 대학 부임 당시 DNA·단백질 등을 형광물질로 염색하고 단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하 교수는 이를 통해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속속 발표해 명성을 얻었다. 또 2011년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호암상을 받았다.

이봉희 회장은 “이번 강연에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하택집 교수의 역할과 성공담을 알릴 것”이라며 “학생들과 토론하는 기회로 삼고, 한인 커뮤니티와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청 강연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며 한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다.

▷장소: 50 3400 N Charles St, Baltimore, MD 21218(존스홉킨스 대학 휴우드 캠퍼스 Gilman Hall)

## 손수득, 신임 시카고 무역관장 부임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을 통한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미 대형 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유치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시카고무역관 손수득(인문대 82, 사진) 신임 관장이 1월 26일 업무를 시작했다.

손수득 동문은 “시카고 근무 경험이 있는 선배들로부터 가장 미국적인 도시이며 진짜 미국을 알기 위해서는 시카고 근무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시카고에 대한 첫인상을 전했다.

손 동문은 “글로벌 기업간 협력하는 GP 사업이 최근 국제적인 추세다”며 “시카고는 GP사업의 발원지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GP 사업분야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년간 투자유치 부서 근무 경력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시카고 근무 기간 중 미국 대형 기업 및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한국으로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손 관장은 “중소기업 지사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또한 다양한 투자유치 관련 이벤트 개최, 전시 컨벤션 참여 및 개발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임 손수득 무역관장은 모교 독일어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등에서 코트라(KOTRA) 최초 30대 무역관장, 유럽지역관장 등을 거친 독일 유럽 전문가다. <미주중앙일보>

[사회]

## 한국어의 영어 오염

### English Contamination of Korean Language 2



이원택 (의대 65)

#### 문화식민지 (a cultural colony)

중국사람들만큼 자기 나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잉글랜드를 英國(잉구오), 아메리카를 美國(메이구오), 도이취를 德國(데구오), 프랑스를 法國(파구오)로 번역했을 때 발음뿐만 아니라 그 뜻에도 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써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흔적이 있다. 언어를 빌려온 대가를 지불한 셈이다.

인터넷이 판치는 요즘에도 중국에서는 영어를 자기 말로 번역해서 쓰려는 노력이 여력하다. 예를 들면 network를 網絡(왕루오-망락: 명주실로 짠 그물), down-load를 下載(시아자이-하재: 내려 실기), log-in을 登錄(렝루-등록), video를 顯示(시아쉬-현시: 나타내 보임), cyber를 虛似(수니-허사: 거짓 닮음), analog를 模擬(모니-모사: 비슷하게 닮음), software를 軟件(루안자이안-연건: 연성 물건), internet café를 網吧(왕바-망파: 전산망 다방), text를 文本(웬헨-문본: 바탕 문안)으로 번역한 것은 그렇다 치고 Word Wide Web을 萬維網(완웨이왕-Wan Wei Wang-만유망: 만국을 엮어 매는 그물)이라고 번역하는 데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중국인들은 ‘짜퉁’을 만드는 데도 사들이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번역하면 한자문화권에서는 음만 자기식

으로 고쳐서 그냥 사용하곤 했으나 요즘은 영어나 한자나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므로 이왕이면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원문을 직접 수입해서 쓰고 있다. 아직은 미국이 강국이라 그대로 넘어가지만, 중국이 강국으로 떠오르면 그들 말을 따라 가야 할지도 모른다.

어드메쯤 왔으며, 어디메로 가는가?

Where we are, where are we heading?



한글의 어휘가 부족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속에 고사부리(늘 병치레하는 사람), 노라리(건달), 단미(사랑스러운 여자), 대접불이(술꾼), 맷가마리(매 맞아 마땅한 사람), 떨거둥이(노숙인), 벋바리(주위에서 도와주는 세력) 등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곱어른(어른의 웃어른), 나지라기(신분이 낮은 사람), 무릉대(능력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 바심(뜻곡식을 타작하는 일), 뿔뿔가지(성깔이 있는 자), 시큰둥이(회의론자), 여리꾼(흥정 불어주고 뺑방 켜는 자), 옹고두리(골초) 등은 전연기념물이다.

한글의 어휘가 부족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말 속에 고사부리(늘 병치레하는 사람), 노라리(건달), 단미(사랑스러운 여자), 대접불이(술꾼), 맷가마리(매 맞아 마땅한 사람), 떨거둥이(노숙인), 벋바리(주위에서 도와주는 세력) 등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곱어른(어른의 웃어른), 나지라기(신분이 낮은 사람), 무릉대(능력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 바심(뜻곡식을 타작하는 일), 뿔뿔가지(성깔이 있는 자), 시큰둥이(회의론자), 여리꾼(흥정 불어주고 뺑방 켜는 자), 옹고두리(골초) 등은 전연기념물이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말을 멋으로 썼으나 인공위성이 펑펑 날아다니는 시대에서는 맛으로 쓴다. 맛 중에 최고는 ‘노들강변’같이 축 늘어진 맛이지만 맛 중에는 ‘금 두꺼비 진로’같이 톡 쏘는 맛이 제일이다. 현대같이

지(semi-colony)라는 말도 있다. 식민지란 조공을 바치는 나라란 뜻이다. 어수룩했던 시절에는 해적질도 많이 했지만, 발랑 까진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이든 수입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 상품의 경우도, 영화를 사 오거나 공연료를 내거나, 판권을 지불하거나 특허권 사용료를 내거나 간에 다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상품을 수입해서 국민들이 잘 쓰고 남은 것을 가공해서 이문을 남기고 탄 나라에 팔아넘기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일본의 뒤를 따라 우리나라도 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들이던 서구 문명의 물동량은 어마어마하다. 그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게 마련이다. 문명을 얻었으면 문화를 팔아야 한다. 일종의 세금이다. 대개 수입품이란 가시적인 현물 가격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묵시적인 세금이 엄청난 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은 벌룬 페이먼트(balloon payment: 증폭 지불)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문화를 팔아서 문명을 사는 일은 마치 여인이 돈 받고 정조를 파는 일이나 마찬가지라 할지도 모른다. 대원군은 이처럼 조선 여인들의 정조를 지키려고 쇄국정책을 펴나갔다.

이 발 빠른 세상에서는 맛을 부릴 여유가 없다.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가기에도 바쁘다. 특히 컴퓨터에서는 글 대신 그림을, 긴 단어 대신 약자를 선호한다. 시간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돈은 들고 도는 것이고 빨리 돌수록 고물이 많이 떨어진다.

세상은 가속도를 내면서 변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현존하는 6000여 개의 언어 중에 100년 후까지 살아남을 말은 10여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한다. 한글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최소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이 조시(추세·트렌드)로 나가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 속국이었었고 지금은 미국의 문화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 식민지라는 말이 거슬리면 반식민

침도 편하다고 자주 쓰다 보면 어느새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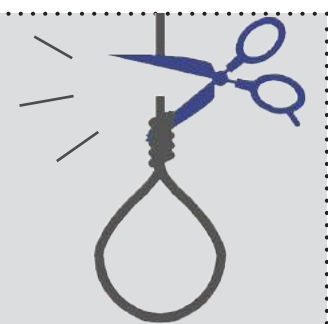
도 그쪽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리고 은연중에 문화수출국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사대 사상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약자는 강자에 구부려야 살아남고 소도 비빌 데가 있어야 일어나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아이는 어른을 닮아가고 학생은 선생한테 배운다.

사대사상의 단점은 그 의존성에 있다. 외국 문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일종의 중독 현상이다. 영국이 중국을 먹으려고 아편을 팔아 놓은 것은 고전적 방법이고, 일본은 우리의 열을 빼려고 장쑤개명이란 중세적 방식을 답습했으나 미국이 할리우드 영화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다. 세계에서 할리우드 영화가 제일 판을 치는 나라가 한국이다. 영국은 동생팬이고 일본은 저리 가라 이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몇 년간을 빼곤 한 번도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만년을 외세에 빌붙어서 살아왔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즐겨 쓰지 않는다. 영어를 쓰더라도 자기 말로 바꿔서 쓰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로 다투어서 영어를 쓰려는 경향이 있다. 지금 당장 영어를 못 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소통이 두절되고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는 주식이 조금 하락하다가 말 것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고 우리는 자신이 없다. 일본은 외래문화를 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외래문화에 빨리 들어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식민지 근성’이 남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른 말로는 ‘노예근성’이라고도 한다.

2/4(계속)  
<한미번역문화학회 회장>



가 돼야 한다는 강박증이 이런 현상을 불러 왔다는 분석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고 성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함과 초조함, 수치심을 갖는 것이 대표적인 증세인데요. 상담실을 찾는 학생들은 늘었지만, 인력과 예산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상담을 받으려면 최대 55일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도 있는데요. 서울대는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상담 대기 기간을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돌입을 위해 대학 본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YTN)



## 영원한 판따라, 희망을 광고하다

사람 사이 진심만큼 힘이 센 게 있을까.

판타지와 팩트 사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로 잔뼈 굵었을 40년 베테랑 광고쟁이에게서 낯선 그대로의 진심을 건네받을 줄이야. 그가 건넨 마음 너무 투명해 잠시 숨을 고른다.

예순 해 넘게 살다보면, 그것도 성공한 사업가라면 으레 쟁여놓았을 구구절절한 무용담 대신 그는 삶에 대해, 삶의 사막에 대해, 그리고 그 사막을 건너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막 위에서 그는 꽤나 골똥했던 듯했고 심지어 그곳에서 낙타와 사막여우와도 친구 먹은 듯도 했다. 그래서였나보다. 그에게서 어린왕자와 중원을 떠나 강호를 떠도는 절대고수의 풍모가 동시에 읽혀졌던 까닭은. 해맑은 소년과 백발성성한 고수의 모습이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얹혀있는 팬콤 김영민(농대 72) 대표를 LA 한인타운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했고 그의 진심은 뜨거웠다.

판따라, 광고에 미치다

팬콤은 미국 내 아시안 광고대행사들 중 톱 10에 드는 이 바닷 최고의 광고대행사다. 어느새 설립 35주년을 맞은 팬콤을 이끌고 있는 김영민 대표의 별명은 ‘쌀집 아저씨’. 그러나 이 소탈한 별명과 달리 그의 이력은 화려한 ‘판따라’ 인생이다. 서울대 농공학과 재학시절 농대 밴드 샌드페블즈와 교교동창들과 조직한 헤비메탈 그룹 스푸커스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다. 대학 재학시절 이미 맛동산, 바밤바 등 광고계 레전드 CM송을 제작하면서 업계에 주목을 받으면서 졸업 후 현 LG에드의 전신인 회성산업에서 입사했다.

입사 4년차 무렵 전문적으로 광고 공부를 하고 싶어 1980년 아내와 함께 LA에 왔다. 오자마자 지인과 의기 투합 팬콤을 설립했지만 처음 1년여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당시 한인사회에서 보기 드문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의 광고가 한두 편씩 방송을 타면서 자연스레 광고주가 몰려왔다. 그렇게 80년대 한인사회를 풍미한 팬콤의 광고는 김소전기, 헬리트론, 한국.올림픽,김윤성 자동차 등 로컬 업체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현대 자동차 등 지상사 광고까지 1000여 편에 이른다.

이렇게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1992년 퍼시픽벨의 아시안 마켓 광고를 접수하면서 팬콤은 주류 광고업계에 주목을 받게 된다. 그때부터 팬콤은 승승장구해 포드, 볼보, UPS 등 내로라하는 주류 기업들의 아시안 마켓 광고를 책임지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인 유명세도 났다. 그리고 2005년 팬콤은 AT&T의 미 전국 아시안 마켓 광고를

대행하면서 명실상부 미국 내 최고의 아시안 광고대행사로 떠올랐다. 덕분에 매출은 3000만 달러로 경총 뛰어 올랐고 직원 규모도 50여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수년간 팬콤은 미국 내 유력 광고전문잡지가 뽑은 아시안 마켓 광고대행사 랭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003년 AT&T 전국광고 대행  
미 아시안 광고업체 1위 등극

15년째 부부세미나 열어 인기  
사업 어려워도 기부 계속 해와

그러면서 팬콤을 인수하려는 대형 광고업체들이 앞다투어 러브콜을 보냈다. 거액을 제시하며 팬콤을 인수하겠다고 했지만 그에게 1초의 고민거리도 되지 않았단다. 그래도 그 거액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지금 와 후회할 법도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사막을 건너는 법

“당시 광고업계에선 대기업이 잘나가는 중소 광고업체를 인수합병 하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오너는 한몫 챙길지 모르겠지만 20년간 동고동락해 온 직원들은 레이오프 등 피해를 입을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할 순 없었죠. 저를 믿고 함께 한 동료들과 팬콤을 키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팬콤도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 터지며 위기를 맞았다.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회사 안팎에선 ‘이제 팬콤은 끝났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위기를 맞으면 뭐가 됐든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죠. 그러다보면 닥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상상해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생이든 사업이든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봐요.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는 회사 문을 닫아야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대신 어느 때와 똑같이 출근해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전기세를 못 났으니 조만간 전기가 쏠길 것이라 미리부터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오늘 전기가 들어오

면 전기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비관적인 결정일수록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좋고 봐요. 내일 또 어떤 희망적인 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덕분에 그는 직원들과 함께 그 사선을 넘으며 각별한 전우애를 다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고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적잖은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팬콤의 옛 명성도 회복하고 있다.

이 남자가 사는 법

어느새 환갑을 넘었지만 그는 여전히 유쾌한 청년이다.

그가 출석하는 ANC은누리교회(담임 유진소) 찬양팀에서 20~30대 젊은이들과 어울려 키보드를 연주하는가 하면 부부세미나, 상담사역, 선교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정사역원 원장 재임시절 맡았던 부부세미나에 대한 그의 애정과 관심은 교회 울타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 아내 카니 김씨와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15년간 사재를 털어가며 진행한 이 부부세미나를 거쳐 간 이들이 1500여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그는 사회 환원과 선교사업에도 열심이다. 그간 회사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변함이 없었으니 그런 그를 보고 직원들이 더 격정할 정도였다고.

“남을 돕는 일에 쓰는 돈은 원래부터 내 돈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 돈이 아닌데 아까울 이유가 없죠. 밀저야 남는다는 것이 저희 부부 삶의 모토거든요.(웃음)”

아뿔싸,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업가에게서 이런 천진난만한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될 줄이야. 이렇게 나이 들 수 있다면, 20대 청년의 열정을 가슴에 품고 깨달음을 얻은 무림고수처럼 일회일비 하지 않으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미주중앙일보>



광고대행사 팬콤 김영민 대표

### 나만의 Well-Be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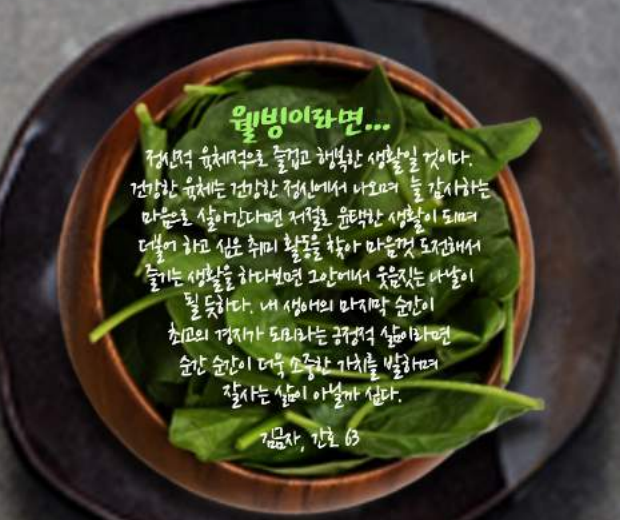
**웰빙이란?**

내 주변의 양화를 살필 여유가 있는 삶이다  
나 자신이나 가족의 삶에 평안할 때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기니 말이다

박성연, 가평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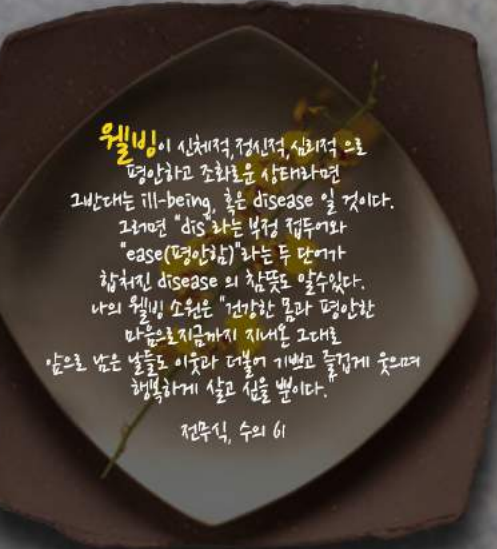
**저는 젊어서 운동과 흡연을 많이 했습니다.**  
60세를 지나면서 금연과 금주를 하였으며,  
일상 생활을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에 과잉하지 않고, 내 복수에 맞게 살아가고 노력합니다.  
Reinvigorate 라는 화를 일러줄 Stretching으로 시작하고,  
심사부는 한시간 정도 산책하고, 점심에는 휴식하고,  
취미생활로 소일합니다. 휴식이 있어서, 마음은 항상 편안합니다.  
박영재, 약대 48



**웰빙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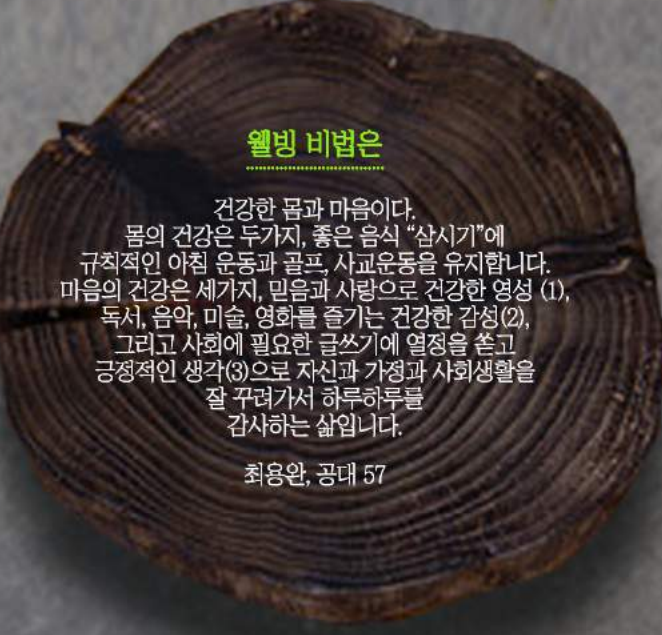
정체적 현대적의 돌고래 행복한 생활을 지니다.  
건강한 몸체는 건강과 정서에서 나오며, 돌고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대상이 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즐거는 생활을 하다보면 건강에서 웃음은  
꽃이 피듯, 내 생활의 마지막 순간이  
최고의 경지가 되리라 하는 긍정적인 삶을  
순간순간 더욱 소중히 가치를 발견하며  
즐거는 삶이 아닐까 싶다.

김남, 건대 63



**웰빙**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그  
평안함과 조화로움 상태라면  
그보다는 ill-being, 혹은 disease 일 것이다.  
그러면 "dis"는 부정 접두어와  
ease(편안함)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disease의 착륙도 알수있다.  
나의 웰빙 소원은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그대로  
앞으로 남은 날들로 이웃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싶다."

전옥식, 수의 61



**웰빙 비법**은

건강한 몸과 마음이다.  
몸의 건강은 두가지, 좋은 음식 "산시기"에  
규칙적인 아침 운동과 골프, 사교운동을 유지합니다.  
마음의 건강은 세가지, 믿음과 사랑으로 건강한 영성 (1),  
독서, 음악, 미술, 영화를 즐기는 건강한 감성 (2),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글쓰기에 열정을 쏟고  
긍정적인 생각 (3)으로 자신과 가정과 사회생활을  
잘 꾸려가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삶입니다.

최용완, 공대 57

**"나의 Well-Being 비법은?"**

#1. 수선제가후국평원하(修身齊家後治國平天下)라는  
말을 항상 명심한다.  
#2.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의 priority를 정한다.  
#3. 위의 두 항목을 조화롭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박정서, 약대 60

**기쁨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도미 후 40년이 넘도록 유행성 감기  
한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10년전에 난치의 희귀한 흉선암을  
37기에 발견하여 독감 한번 앓은 것  
보다 쉽게 치료를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다.  
뒤뜰에 2,000 sq.ft(70평) 정도의  
뒷밭을 만들어 봄부터 가을까지  
아침 저녁으로 화초와 채소를  
가꾸면서 즐기고, 거기서 나오는  
풍성한 아재로 식탁을 채우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도 누린다.  
늦은 봄 영두로부터 시작하여 산  
딸기, 무화과, 가을에는 감, 밤, 은행  
등 과목도 심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말씀, 가벼운 운동으로 두어  
시간 영성과 기초 체력을 단련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행복감을 주는  
낮잠도 즐긴다.

매주 친구들과 한 두 차례 만나는  
일, 한두 번 텀플의대 아시안  
건강센터에 나가 연구를 돕는 일로  
바람을 쐬다. 암 환우를 돌보는 일,  
교회 어른들을 섬기는 일로  
즐거움을 삼으며, 매년 10월 한달은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전도한다.

작년에는 매년 가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전도 소책자를  
만들어 300여 곳에 발송했다.  
좋지 않은 일, 기분 나쁜 생각은  
머리에 맴돌지 못하게 하고,  
가슴 속에 이상을 느낄 때면 "내  
나이가 몇인데!"를 되뇌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

김재술, 약대 58

**Eat well... Stay well...**

나에게 웰빙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화가날 때 욕을 수 있는 것, 눈앞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  
조그만 일로 치상할 수 있는 것,  
종이까지 읽는 사람도 포로할 수 있는 것,  
비밀을 때 과속하지 않는 것,  
내가 불의를 때 정직성을 잃지 않는 것 등  
모두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나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다.  
나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정태광, 공대 74

**웰빙에 관한 수다.....**

아제 오랜만에 연주 때문에 미국에 들어온 백운학 동문과 몇몇 음대 동문들이  
모여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나누는 대화 중, 웰빙에 대한 걸 정리해서 보냅니다.

**심화진 (음대 90):** 웰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 자신만의 웰빙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백운학 (공대 94, 음대 96):**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것이요.  
마음이 편하면 잘 먹고 잘 자게 되고 그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웰빙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웰빙 아닐까요?

**김미순 (음대 86):** 난 요가나 다른 운동을 하고, 마음을 편히 먹는 것,  
그리고 좋은 음식, 건강식 챙겨 먹는 거라고 생각해.

**유미영 (음대 87):** 마음 맞는 사람들과 좋은 얘기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게 웰빙 아닐까요? 지금처럼 말이예요. 오랜만에 언니들, 후배들하고 만나서  
맛있는 음식 함께 먹고 신나게 수다 떨고, 많이 웃고, 너무 즐겁잖아요.

**박혜란 (음대 84):** 난 과식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과식은 실패이고, 결국 욕심이잖아.  
튀든 음식 부리다 보면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탈이 나고,  
나아가 사람 관계에서도 탈이 나는 것 같아.

**심화진:** 종합해보면 결국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웰빙에서 중요한 것 같네요.  
아무리 건강식을 챙겨 먹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이 없겠조? 그리고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 두 뉘듯이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도 완전한 웰빙이 아니겠고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웰빙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자리를 종종 갖는 게 어떨까요? (웃음)

**가장 것**의 밑고 적음에 따라 '살 안다' '죽 안다' 구분되면 사람이  
있었다. 먹고 살아남는게 관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가장 것은  
전나 정신적으로 튼튼하고 몸이 튼튼한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볼 이유는  
따라서 없었다. 가장이 깨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가장 것이 많더라도 이런 삶 산다고 부끄러울 만큼 뭐라도 잘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가장 것이 적어 살기 비록 불편할지라도 이보다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면 최소한 풍산다라는 하지 않느냐 말이다. 잘 먹었다. 잘 놀았다란  
말은 반드시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말이다. 따라서, '소홀'을 살리는 말은  
'비밀'에 맞춰 잘 살아가는'의 과정 아닐까?

(1)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았고,  
(2) 가장과 함께 할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과하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고,  
(3) 내 건강을 위해서 술을 즐기지 못했고, (4) 보습으로 친구들과의 연락을 하며 살기 못했으며,  
(5) 집이 나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뒤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삶을 반복했다.  
그러나 내 취미를 반영해서 삶이 주위의 주지 않고 내 뜻을 살려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가족 및 친구들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내면 아주 얇은 가막이 하나 있다. 얇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귀찮은 귀찮은 감이지가 들어 들어 속까지 흔들리게까지 한다.  
그러나 채와 세월을 얻는 본래의 영혼을 성실하게 수련하고 있는 한 바깥에 성장은 없다.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면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바깥에서 속으로 '이 가막은 끝까지 자기 영혼을 잘 감당하겠다.'  
강하게 내면 수련했다 (2) 말할 것 같다. 가막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잘 살았다'고 하지 않을까?  
결국 내가 잘 살고 목 안것은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만들고 또 사소한 불이 만만할 뿐이 아닐까?  
그러면 잘 사는 것, 곧 영혼 Well Being이로 왜 값비싼 유제품 식재료와 스타, 피트니스 클럽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김정수, 공대 79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있고**  
인생을 성장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눌 수 있다면  
먼저 영혼이 잘 될 같이 육신의 건강도 - 속칭 웰빙 - 온전해지며  
인생의 성장기가 장년의 가족과 행복을 준비하는 목적을 가진 기간이라면  
노년기는 인생의 종점으로 확실한 방향 내지는 목적(영생)을 향할 때  
뜻있고 보람된 웰빙의 삶이 아닐까요?

.....김용식, 약대 66

**진화론의 불초로 시작하여**  
20세기의 Telomere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는 모두 불초를 계승하고 있다.  
침묵한 웰빙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두 번들 소원을 존제하는 것을  
몸에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고 본다.  
우리의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  
물질적인 면과 에너지적인 면, 불생의 면과 영생의 면,  
사망의 면과 부활의 면, 이 모든 양면들에 공헌을  
이루는 것이 삶의 자세로  
웰빙을 이루며 누리는 삶이 도라야 본다.

김우형, 약대 63

**좋아하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을 챙기고 기대치를 낮추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하루 하루를 잘 보내며  
가족, 친구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게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경선, 농대 65

**Be Happy**







[음악]

# J.S. Bach, John Cage와 Tan Dun



**이현림 (음대 81)**

우리는 요즘 ‘Organic’이란 단어를 무척 좋아한다. 올게닉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올게닉 옷, 올게닉 가구까지 다양하게 출시된 올게닉 상품들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런 풍조는 이 시대의 트렌드인 ‘Natural’한 미술, 건축, 인테리어, 패션, 화장술 등과도 매우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음악 쪽은 어떨까? 음악에도 자연주의가 있을까? 혹시 올게닉 음악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

현재 가장 유명한 중국 작곡가 탄 둔(Tan Dun)은 자신의 곡에 물, 돌, 종이, 세라믹등 자연을 이용한 소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소리를 내기 위한 자연적인 재료들을 그는 Organic instrument라고 부르고 그것들과 어우러진 곡을 Organic music이라고 분류한다. 1998년에 만든 ‘Water Concerto for Water Percussion and Orchestra’란 곡은 이런 소재를 사용한 그의 최초의 대곡이다. 무대 위에는 물을 담은 여러 basin들이 출현하며, 사발,병, 손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소리는 마이크로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청중에게 전달된다. 이런 그의 시도는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은 소리를 구성하는 악기 소재의 다양성 뿐 아니라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상당히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는 바하의 마태수난곡이 시간이 흘러 음악의 스타일이 변해가며 25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도 변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에 LA Master Chorale이 연주한 적이 있다.)

탄 둔의 성장 배경을 보면 드라마틱한 면이 있다. 1957년 중국 후난지방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자라 어릴때 자연에 많이 접할수 있었고, 중국 전통의 샤머니즘 음악을 들으며 매우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어릴때 체험한 요소들이 후에 그의 음악적 바탕이 되었고 작곡할 때 오는 동서 문화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 그는 중국 전통 현악기를 배우고 앙상블 활동도 하다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팔농사를 짓는 인부로 착출되어 농부의 삶을 살게된다. 그러던 어느날 배 사고로 베이징 오페라단 단원들이 많이 죽어 순화공연을 할 수 없자 바이올린 연주자로 긴급히 오케스트라에 투입된다. 공산주의에서 자라며 자유주의는 독이라고 생각하던 그가 서양음악을 처음 접했을때 그것을 평생 할 것같은 운명을 예감했다 하니 참 아이러니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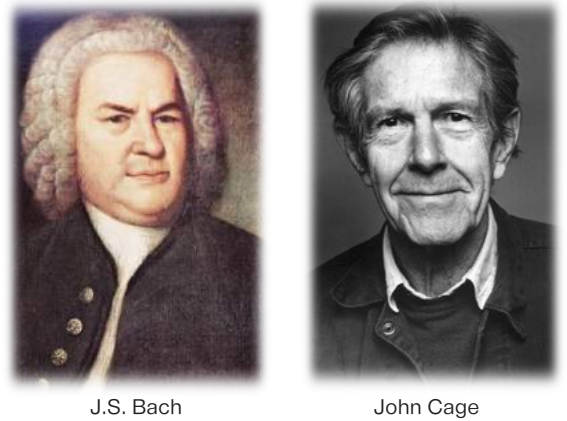
그는 모짜르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문화혁명으로 문을 닫고 있다 다시 열게 된 Central Conservatory of Music in Beijing 에 들어가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미국 Columbia University 로 유학와서 공부한 후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다. 요요마의 첼로가 인상적이었던 와호장룡의 영화음악으로 그는 아카데미상과 그레미상을 받았으며 동양적 색채를 가진 서양 음악, 여러가지 새로 운 현대적 시도등으로 현재 중국의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국가적 작곡가가 되었다.

사장, 무지한 군중심리, 그를 따르는 가난한 여인등 멜로 드라마보다 더 강한 인간적 감정과 그로 인한 진한 감동이 있다.

바하는 이러한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겨 주었지만 그 당시 바하는 비발디 등 동시대 작곡가에 비해 저평가되고 교회 음악 작곡가로만 인식되다가 밀러드는 새로운 음악 양식, 즉 고전주의 음악에 밀려 이후 완전히 잊혀진다. 그의 악보는 마침내 고깃덩이를 싸는 종이 포장지로 전락하게 되어 펠릭스 멘델스존의 눈에 띄기까지 100년간 철저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것이다.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음악도 시대와 시대 사이의 교두보의 역할을 하거나 그 정도를 뛰어넘는 작곡가들이 큰 줄기를 만들어 왔다 . 말러가 무조성 음악을 막 도입하고 낭만주의에서 현대주의로 넘어가는 여러 요소를 사용할 때 그를 비난했던 대중도, 쉐베르그의 불협화음에 귀를 막고 싶어 하던 사람들도 몇십년이 지나자 이제 그정도 좁은 즐길 수 있는 수준으로 변모하였다. 대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변화를 따라가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J.S.Bach의 마태수난곡이 Tan Dun의 마태물수난곡으로 변모하는 지점까지 온 것이다.

사실 현대음악의 여러 획기적 변화의 장을 마련한 사람은 1992년 타계한 작곡가 John Cage이다. 그는 앞서 말한 탄 둔이나 백남준을 비롯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현대음악의 거목이다. 그의 음악을 간단히 말하자면 전통적인 모든 한계를 없앴 것이다. 또한 우연히 만들어 지는 소리도 음악에 포함시켰다. 소리와 음악



의 구분, 음악과 소음의 구분, 음표, 악보의 고정관념들이 모든 것들을 cage에서 깨내준 것이다. 더이상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악보로 세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작곡가의 의도가 담긴 음악을 완전히 없앴으로써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해주려는 것이다. 이제 음악도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당장 그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의 몸이 된 음악의 무한한 발전을 보고 즐기게 될 것이다.

[미술]

# 공간감각

건드리면손끝에문을듯이팔간鳳仙花  
너울너울하마날아오를듯하얀鳳仙花  
그리고어느틈엔가南으로고개를돌리는듯한一片丹心의 해바라기 --  
이런곳으로꾸며졌다는고호의무덤은참열마나美로우리라.

山은맑은날바라보아도  
늦은봄비에젖은듯보였습니다

포푸라는마물의指標와도같이  
실바람에도그뿔은듯흔출한키를  
拋物線으로굽혀가면서眞空과같이마알간大氣속에서  
원경을축소하고있습니다.

몸과나래도가벼운듯이잠자리가活動입니다  
한데그것은果然날고있는걸까요  
恰似眞空속에서라도날을뻗한테,  
혹는가눈에보이지않는줄을이리저리당기는것이아니겠나요.

이상(李箱)의 ‘청영’(잠자리)이라는 시를 읽으며 그 뛰어난 시적 공간감각의 천재성에 감탄을 하곤 한다.

손끝에 닿는 빨간 봉선화가 건드려지는 섬세한 공간의 떨림. 하얀 봉선화의 날아오르는 공간. 너울 너울이라는 시어의 공간. 남으로 고개를 돌리는 듯한 해바라기의 시간적 공간. 순간 저 멀리로 시선이 가게 하는 산.

포플라의 흰칠한 키가 짧은 듯 포물선으로 굽혀가며 원경을 축소한다는 구절의 더욱 멀어졌다가 순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리와 속도의 공간. 잠자리가 나는 가벼운 공간의 자유로움. 이리저리 누군가가 줄을 당길 지도 모른다는 시귀의 높고 너른 신적 공간.

잠자리를 바라보는 시인의 공간 감각이 너무나 아름다워 공간 설명

[문화산책]

# 칵테일 상식 - 시리즈 2



**김창수 (약대 64)**

미국의 음주문화는 한국과는 달리 음주를 하되 잔뜩 취하도록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밤 늦도록 2차·3차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각자의 음주량에 맞게 드링크를 즐긴다. 식당이나 바에서 음주하는 미국인들을 보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칵테일을 각각 주문하고,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또는 강제로 권주(勸酒)하지 않는다.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고 단체활동에 익숙한 우리 한 이들은 미국에 살면서도 음식이나 술을 주문할 때 같은 것으로 통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술도 소주나 맥주 또는 물을 합친 폭탄주를 다 같이 마시거나, 양주를 병 채로 놓고 음주를 한다.

서양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증류주는 병 단위로 서브하지 않는다. 손님들은 칵테일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어너더 라운드(Another Round)”라고 말하면서 추가 주문을 한다. 와인은 한 잔, 한 병(750ml), 한 플라스크(Flask) 혹은 작은 병(375ml)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

사회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은 필요하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미국 사람

을 하는 것조차 한편의 시의 절대 공간에 누를 끼치는 듯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대기는 투명하고 밝고 맑고 무한하다. 사물과 풍경을 바라볼 때에 그 사물과 풍경을 담고 있는 공간을 바라보기를 즐겨한다. 그림을 볼 때에도 무엇을 그렸는가 보다는 화가의 공간 감각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는 게 기쁘다. 어떤 그림은 손바닥만 한데도 무한한 공간을 담고 있고 어떤 그림은 벽을 다 채웠어도 숨이 막힌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제의 나를 비움으로써 오늘의 삶의 공간을 새로이 허용하는 것이고 매일 새로 태어난 듯 새로운 하루를 맞는 것이다. 꼭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이란 고정관념으로 내적 공간이 비좁은 사람을 의미하고 푹 트인 사람은 열린 마음으로 자유로이 삶의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화가의 내적 공간감각을 감지하는 것이고 음악을 듣는 것도 공간을 울리는

소리의 감각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공간감각의 혁명이다. 마음의 창문을 확 열어버리면 더 큰 공간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열어야 할 마음의 창문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 삼라만상이 다 하나의 열린 공간이다.

세잔느의 대욕도(사진)는 한 화가의 일생을 건 공간의 모색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붓이 닿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이 만년의 화가의 더욱 깊고 열린 공간감을 보여준다. 세잔느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깨어난 시선으로 바라본 대가이다.

<이 글은 미주한국일보에도 보내졌습니다.>

박혜숙 (미대 74)

들처럼 술을 아껴서 마시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간(肝)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한 차례 마실 수 있는 양은 알코올 50그램 정도이다. 이는 소주로는 반 병(3~4잔), 양주는 스트레이트(Straight: 다른 것과 섞지 않은 채)로 3잔, 포도주는 2잔, 맥주는 2병 분량이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나서 쉴 수 있도록, 술을 한 번 마시고 나서는 적어도 이틀간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칵테일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증류주를 베이스(Base: 기주)라고 한다. 기주(基酒)는 주로 증류주인데, 진, 보드카, 위스키, 럼, 브랜디 등이 이에 속한다. 믹서(Mixer)로는 과일주인 각종 리큐르(Liqueur)를 비롯해서, 와인 종류인 버머스(Vermouth), 고미제(苦味劑)인 비터스(Bitters), 그리고 소다, 과일주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진, 보드카, 위스키, 버머스 등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 이외에는 사용 빈도가 적고 집에서는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작은 병에 든 것을 사는 것이 좋다.

본인이 집에서 칵테일을 만들어 보면, 본인이나 친구들의 입맛에 맞는 칵테일이 자연적으로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필요한 것만 사도 되고, 미리 여러 가지를 사서 다 구비할 필요는 없다. <CPA, 경영대학원 68, 논설위원>

‘이달의 사진’을 모집합니다.

새해부터 <이달의 사진>이라는 새로운 난을 개설합니다(25면 참조).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경치, 자연, 삶의 모습, 점사 등 장르에 상관없이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직접 찍으신 고화질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매달 우수작을 선정, 소개하고, 연말에 <올해의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동창회 칼럼터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2016학년도 MBA (주간) 신입생 모집

- 모집과정: 주간 MBA (Global MBA, SNU MBA)
- 원서접수: 2016. 2. 1(월) ~ 3. 25(금) \*인터넷 접수: <http://gsb.snu.ac.kr>
- 과정특징

  - ▶ 2016. 8. 16 입학 예정
  - ▶ 16개월 과정 (4학기)
  - ▶ 평일 주간 수업
  - ▶ Global MBA 전 과정 영어강의
  - ▶ SNU MBA 트랙선택 가능(금융/전략기획/마케팅 트랙)
  - ▶ 해외 32개국 48개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복수학위, 교환학생, 단기연수 등 국외수학 기회 풍성
  - ▶ MBA 경력개발실이 주관하는 1:1 커리어 코칭 등 MBA 레벨의 특화된 경력개발서비스 지원
- 입학문의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TEL: 02.880.2551 / 1334    Email: [mba@snu.ac.kr](mailto:mba@snu.ac.kr)

홈페이지 <http://gsb.snu.ac.kr>



제97주년

3.1 삼일절

“영웅을 기억합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하신 날





정진수 (공대 56)

안중근 의사(1879~1910)는 한국, 북한(조선)뿐 아니라 중국사람들도 존경하는 우리의 애국지사입니다. 중국의 손문, 주은래, 한국의 김구선생 등이 제사를 드리고 휘호를 남겼다.

필자가 2006년 9월, 중국 대련공과대학에서 열린 제 7차 환태평양 해양석유역학 심포지엄(Pacific/Asia Offshore Mechanics Symposium, 필자가 의장) 참석 중에 당시 외국인 방문금지 도시인 여순시에 여순감옥소만 방문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아서 대학에서 내준 차로 감옥소를 방문했다. 아마 필자가 1981년 중국 교육부 초청으로 대련공대에서 2개월 동안 중국석유회사 엔지니어에게 해양석유생산기술 강의를 했던 것이 허락에 도움이 된듯하다. 사진 찍는 제한 없이 감옥소 전체를 감옥소 관리의 친절함 안내로 둘러보았는데 안내원은 이미 필자가 안중근 의사 때문에 온것을 눈치를 챈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안의사의 높은인품을 소개해 주었다. 안의사방은 일본인 간수사무실 바로 옆방이다. 감옥소는 기념관으로 깔끔하게 유지되어있다. 여기에 2006년에 찍은 사진 몇 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독립 애국지사 신채호 선생도 여순감옥소에서 병사(1880~1936)했다.



▲ 여순감옥소 배경으로 찍은 필자



▲ 감옥소 일본인 간수 사무실



▲ 간수 사무실 바로 옆의 안의사 방



▲ 교수형 집행 건물 입구



▲ 세 개의 교수형 집행용 밧줄



▲ 안의사 교수형 집행방

## 서울대가 사랑한 책 2년 연속 1위 ‘에우리피데스비극’

〈2015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대출 상위 10개 도서 현황〉

| 순위 | 서명            | 저자        | 대출 횟수 |
|----|---------------|-----------|-------|
| 1  | 에우리피데스비극      | 에우리피데스    | 74    |
| 2  | 총,군,쇠         | 제레드 다이아몬드 | 49    |
| 3  | 소포클레스비극       | 소포클레스     | 46    |
| 4  | 아이스킬로스비극      | 아이스킬로스    | 43    |
| 5  | 항수            | 파트릭 쥘스킨트  | 42    |
| 6  | 아리스토파네스희극     | 아리스토파네스   | 42    |
| 7  | 감시와 처벌 2005   | 미셸 푸코     | 40    |
| 8  | 정의란 무엇인가 2010 | 마이클 샌델    | 38    |
| 9  | 백년의 고독 v.35   | 가르시아 마르케스 | 38    |
| 10 | 서양미술사         | 곰브리히      | 37    |

서울대 도서관 대출 상위 10개 도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모두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군, 쇠’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지난해 공동 8위였던 ‘소포클레스의 비극’, 4위는 지난해 3위였던 ‘아이스킬로스의 비극’이었다. 5위는 파트릭 쥘스킨트의 ‘항수’와 지난해 4위였던 ‘아리스토파네스희극’이었다. 7위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었다. 8위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이었다. 마지막 10위는 곰브리히의 ‘서양미술사’였다.

올해 상위 10권은 모두 외국인저자의 도서였으며 자연과학관련 도서는 단 한 권도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는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이 국내저자 도서였고 과학분야의 경우 데이빗 할리데이의 ‘일반물리학’이 5위를 차지했었다.

그리스 고전이 10위 내에 4권이나 포함된 점도 특징이었다. 원인은 2012년부터 고전읽기 강화에 따라 ‘삶과 인문학’ ‘고전으로 읽는 인문학’ 등 고전 읽기 강좌가 인문대학 신입생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때문이다.

10년전과 비교하면 상위 10위 도서의 도서관 대출횟수는 크게 늘었으나 자연과학관련 도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향이 컸다. 2004년의 경우 지동표의 ‘선형대수와 그 응용’, 대한화학회의 ‘표준 일반화학실험’이 수학/과학 관련 도서였다. 2005년의 경우 송희성의 ‘양자역학’, 리처드 거버의 ‘Vibrational Medicine(파동의학)’, 대한화학회의 ‘표준 일반화학실험’이 각각 4위, 7위, 9위를 차지했었다.

[철학]

‘실존과 본질’

Well-Being에 관한 짧은 생각



이상봉 (문리대 65)

동창회보에서 ‘웰빙(Well-Being)’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 누구나 다 ‘웰빙, 웰빙’하는 이 시대에, 웰빙(Well Being)에 관한 글을 내가 쓰기 어려웠던 이유는 나의 전공이 철학이기 때문이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무엇이 있다! 무

어서 써 볼까? “그대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큰소리를 벌컥 지르면서 다른 사람을 내리쳤는데... 바로 그 다음의 순간에, 자기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면서, 내 본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였던 경험에 있지 않은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행동(행위)이 일어나는 것은, 원래부터 그와같은 행위를 하게끔 본질적으로 정(定)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실제의 상황’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보다 ‘앞서서’ 일어나게 되어있다! 는 말이다.

따라서, 원문(原文)에 충실한 번역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가 아니고, ‘**실존이 본질에 앞서서 일어난다(실존이 본질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Lightning precedes thun-der.’라는 말은, 번개가 천둥에 앞서서 친다, 즉 ‘천둥에



엇이 **存在(exist)하고 있다!**”고 하려면, 그 무엇이 반드시 존재(存在)하고 있어야만 되고, 그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즉 “저기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누가, 그 곳엘 가더라도, 그 곳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만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空想이나 想像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공상 속에서 만들어진 ‘**가설적인 단어**’에 지나지 않는 단어들- **용궁, 불사조 또는 神이 존재하고 있다! (God exists)**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없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받아 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기회에 존재(Existenc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하나 짚어보기로 할까? 實存主義(Existentialism)의 토대가 된 **Sartre (사르트르 1905-80, 사진)**의 말에 ‘**Existence precedes essence.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라는 것이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들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은, 가지고 태어난 본성보다 앞선다.**”라는 것인데... 여전히 애매모호 하지 않은가? 이 말이 일반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단어 - **앞선다(Precede)**- 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기회에 앞선다 (Precede)라는 단어에 대하여 관조해 보기로 하자. 앞선다 (Precede)는 것은 ‘**앞서서 시작된다 • 먼저 일어난다**’라는 의미일 뿐이지, ‘**더 위대하다 • 더 낫다**’라는 뜻이 아니다!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시 한번 풀

《철학박사, 편집위원》

회화

눈을 감고 바라보라

하늘의 향연

귀를 닫고 들어 보라

대지의 명언

토해내는 그 시절

손을 뻗어 꿈을 쫓아

여기까지 왔다

햇빛은 내 마음

가슴속의 속 울음

어김없이 들려 오고

젊은 날의 초상 속에

요동치는 내면의 슬픔

알 수 없는 외로움

끝없이 밀려온다

끊임없는 질문 속에

괴롭고 두려운 대답뿐인 마음

잃어버린 웃음

폭풍처럼 늘어나는 울음

나를 돌아보는 이 순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시계의 태엽을 되감아

그 시절 쏟아지는

별을 향해 충을 쏘

이 길 위에서 나를 찾는다

2014년 작고



손장순 (불문과 54)

원고모집

나의 웰빙비법, 우열을 가리기 힘든 18분의 글들(16~7면)에 대한 편집위원들의 투표결과 김철우(공대 79), 박성연(가정대 88), 김재술(약대 58) 세분에게 상품권(25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월의 주제는 ‘**나의 도전 이야기**’입니다. 100단어 내로 3월 25일까지 news@snuua.org로 보내주세요. 역시 세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창회보는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글의 저자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탈의 사진’에 들어갈 고화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25면 참조). 모든 원고는 500단어 내로 필자 사진 한장과 글과 관련된 사진/그림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마감은 매달 25일입니다. <편집위원회>

[영화]

히말라야

“No Man Left Behind” Docu-Drama



이해연 (공대 56)

익은 경치들이 반갑다.

정상을 100m 남겨두고 험난한 빙벽에서 흑한 가운데 집념의 사나이, 작은 탱크 엄대장과 신참 박 무택대원은 비바크로 밤을 새워 그 이튿날 드디어 정상 등정에 성공, 기쁨을 나눈다. 이어서 K2, 시사광마, 에베레스트를 함께 등정하여 형제와 다름없는 인간관계와 끈질긴 한국인 특유의 순박함은 물론 끈끈한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영화의 절반가량을 가족, 애인, 동료 산악인들의 Human Drama를 유머어와 코믹 터치로 흥미진진하게 국제시장의 황정민과 배우 정우의 진한 연기력으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여기까지는 Happy Ending.

2004년 박무택이 대명대학교 에베레스트 등반대를 이끌고 에베레스트로 향한다.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 도중 8750m 지점에서 박무택은 설맹으로 정재현은 탈진한 상태에서 실족하는 조난을 당하게 된다. 해는 이미 저물고 8000m위의 희박한 공기와 영하 40도와 악전 후에 그 누구도 구조에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캠프3에 있던 박정복이 원정대장의 명령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조하려 암흑 속으로 뛰쳐 나간다. 다음날 새벽 6시에 마침내 박무택이 쓰러져 있는 곳에 도달하여 필사적인 구조 노력에도 그 자신도 무택이와 같은 죽어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조난소식을 전해들은 엄 대장에게는 “내가 대신 당했더라면--”하는 애통한 심정으로 죄책감과 고뇌에 빠지게 된다. 장례식에서 설벽에 매달려 있는 박무택

[과학]

진짜 자동차를 만든다고요?

지난 10일 공대 자동차 제작 동아리 ‘런투유(사진)’의 학생들이 개설한 학생자율 세미나 ‘3D CAD를 통한 1인용 자동차 설계 및 자동차 구조의 이해’를 취재하고 적잖이 놀랐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수업 때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1인용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만...”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당연히 자동차 모형이나 장난감 자동차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모형이요?”라고 반문했고, 곧 스스로의 무지함을 깨닫게 됐다.

개설 학생에 의하면 ‘런투유’ 학생들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완벽한 설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제작을 위해 자동차 부품을 구하고, 용접 기술을 공부하기도 했다. 결국 ‘런투유’는 실제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에 성공했다.

공대 학생들이 우리나라 공학의 미래를 위해 동아리 방에서 밤을 지새는 데도 여전히 공학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다. 중학교 ‘기술과 가정’ 시간에 자동차와 자전거의 원리에 대해 간단히 배운 것 말고는 공학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이런 수업들이 타 계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자가 취재한 학생자율세미나는 기계과 공대생들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미대생과 사범대생도 듣는 수업이다. 물론 공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개념에 익숙하지 않지만, 개설 학생들이 일대일로 도와줘서 진도를 따라가는 데 타 단과대 학생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기자는 그동안 ‘인문계열 학생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으로 공학계열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대학에 관련 교양 수업이 없다는 것도 좋은 핑계였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그런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음 학기에는 기자와 같은 생각을 하던 학생들이 학생자율세미나를 통해 이런 핑계를 타파할 수 있길 바란다. <대학신문>

의 사진 한장을 건네 받는다.

2005년 8750m에 걸려 있는 박무택의 시신을 수습하러 초모람마(에베레스트) 휴먼 원정대를 결성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번 원정은 정상을 오르는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보상도 명예도 돌아오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함께 오르고 함께 내려올 것이다” 엄 대장의 말이다.

“NO MAN LEFT BEHIND”라는 Creed는 군인들은 물론 산악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영화 “Forrest Gump” 에서 Gump가 동료병사와 장교를 구출하는 장면, 2014년에 1000만 관객의 ‘국제시장’에서 흥남 철수시 민간인 구

출, 독일탄광에서 매몰된 파독광부 구출등 인간의 발로 즉 ALTRUISM(이타주의)의 발로가 진행형으로 이어간다.

휴먼 원정대의 도전은 시작부터 순탄치 아니하다. 눈사태를 만나 엄대장이 눈 속에 매몰되었다가 구조되는 사건, 고산병 그리고 계속되는 악천후로 부득이 베이스캠프로 돌아오게 된다. 기상악화로 원정 50여일 오랫동안 고산에 머물러 대원들의 컨디션과 사기도 바닥이 나고 있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며칠 안 남았다. 엄대장은 마지막 결단으로 8750m 고지를 향하여 베이스 캠프를 떠난다. 캠프4에 도달했으나 모두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엄대장이 대원들에게 내려가도 좋다고 종용한다. 그러나 모두 First Step 8,500m까지 전진한다. 빙동간인이 된 박무택의 시신을 불등고 무택야 무택야 부르며 오염하는 얼음길 대장의 모습에 관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8,700m의 Death Zone에서 무거운 시신을 수습하여 험난한 빙벽 사이로 하산하다 미끄러져 구조대원 모두 참담한 조난을 천우신조로 벗어나게 된다. 휴먼 원정대의 목표인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여 꼭 내려가야 되는데 대원 전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 엄대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다 모두 죽어 비극에서 또 큰 비극으로 끝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불명예스럽지만 포기하고 살아서 내려갈 것인가.

절대절명의 기로에 처하게 된 순간, 엄대장에게 해결사 천사가 나타난다. 다음아닌 “여기가 어딘데 왔느냐?”고 야단 쳤던 박무택의 사랑 수염이었다.

“대장님! 오빠가 산을 떠나고 싶지 않은가 봐요, 무리하지 말고 그냥 내려오세요!”, “부탁입니다!” 그 천사의 간절한 사랑에 찬 호소가 에베레스트 산에 매아리쳐 하마터면 한국 산악역사상 돌이킬수 없는 대형 참사, 조난을 모면하게 도와준 기적의 “해결사”가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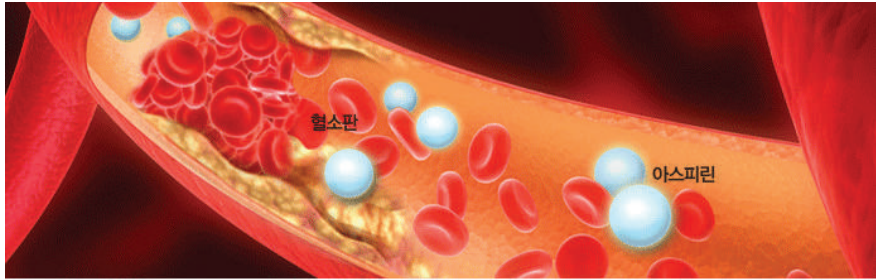
그 결과 박무택의 시신을 핏발 잘 받는 곳, 돌무덤에 안치하고 엄대장은 물론 모든 원정대원들이 무사히 살아내려와 휴먼 원정대의 감동의 대장정은 휴먼하게 Human Film “히말라야”로 막을 내리게 된다.

## [건강] “아스피린, 뇌졸중 예방 효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은 한국인 사망 원인 2위로, 대부분 급성으로 나타나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뇌졸중 예방에 있어 약물 요법의 효과를 살펴본 대규모의 국내 추적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배희준 교수(사진, 의대 89졸업, 대표 저자)와 을지병원 박종무 교수(의대 95졸업, 제1 저자)는 ‘사건



아스피린 복용이 뇌졸중의 중증도 및 치료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신경학 학술지 Annals of Neurology에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국 12개의 뇌졸중 임상 연구센터 제5세부(CRCS-5)에 등록된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 1만6천761명 중 아스피린을 복용한 1만 433명의 데이터

를 대규모 추적 연구한 결과다. 연구진은 급성 허혈성 뇌졸중을 ‘죽상경화 뇌졸중’, ‘소혈관 폐색’, ‘심인성 색전’ 3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고 아스피린 복용 여부에 따른 뇌졸중 중증도(NIHSS)와 출혈변화 발현률 및 퇴원 시 장에 정도(mRS)를 비교 연구했다.

분석 결과 심혈관질환의 1차 예방 목적으로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부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군에서 초기 뇌졸중의 중증도가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죽상경화 뇌졸중에서 아스피린의 심혈관질환 1차 예방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아스피린 복용 환자와 비복용 환자 간 뇌졸중 중증도 점수(NIHSS)의 평균차는 -0.97로,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들의 뇌졸중 중증도가 더 낮았다. 이외에 ‘소혈관 폐색’과 ‘심인성 색전’은 뇌졸중 발병 전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출혈 변화를 일으키기는 하나 유형에 상관없이 퇴원 시 기능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배희준 교수는 “심혈관질환 1차 예방 효과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던 환자군에서 죽상경화 뇌졸중 중증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심혈관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 뇌졸중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중증도를 낮추고 치료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 참가 명복을 빕니다

**故 전병구**(의대 46) 동문님이 2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35년간 근무하시던 조지타운의과대학을 은퇴하신 후 1990년 한림대학에 의과대학을 창설하시고, 워싱턴인교회 장립멤버로 지난 60여년간 동포사회의 초석을 다져오셨습니다.

**故 이인명**(사대 63) 동문님이 2월 11일 뉴욕에서 영면하셨습니다. 이유성(사대 58) 동문님이 부군이십니다. 참가 명복을 빕니다.

**故 김상의** 원로목사님(문리대 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전교단총회장)께서 2016년 2월 2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환송예배가 3월 1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원합니다. 유가족: 김이자 사모 917-864-1390



故 이열모(미대 53) 교수

### 창운(蒼暈) 이열모(李烈模) 선생님을 추모하며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불과 7년 전 이곳 LA의 합석현 선생님 추모회에서 만나 뵈는 것이 처음이었습니 다만 충북 보은이 고향이신 선생님의 온후하고 포용하며 격의 없이 이웃을 당기시는 창운의 품격에 저는 어려서부터 익힌 형처럼 마음을 주고 지내 온 터였습니다.

한참 젊으셨을 때는 역학에도 심취하여 독학으로 경지에 달해 주위에서 입 소문을 타기도 하였으나 화가로서의 외도가 될까 취미생활을 접은 바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고고한 화백의 차분하고 맑은 표정에 상대방을 통찰하는 매력까지 갖춘 80대 신사이셨던 창운께서 갑자기 떠나셨다는 비보에 가슴이 뻐니다.

사가 안돼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어 배와 연결된 기계로 영양을 공급 받기 두어 해 전까지 선생님은 늘 부인과 함께 LA 근처에서 30여분 거리의 당신 화랑을 걸어 다니시며 작품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삼 년 전 서울에 나간 적이 있어 팔판동 한벽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고 계시던 선생님을 뵈고, 전시장벽 하나를 온통 채우다시피 한 선생님의 거작 앞에서 한 동안 넋을 잃은 듯 움직일 수 없었던 기억이 새로 우며 서울 미대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하신 반석 위에 선생님의 전문적인 인품이 어우러져 빛은 작품이 미술 문외한인 저마저도 꼼짝 못하게 했던 게 아니었던가 합니다.

두 내외분을 가끔 산에 모시면 부인은 식사 때마다 남의 젓가락 가까이에 잔을 밀어 넣느라 바쁘셨는데

감기가 폐렴을 부르고, 식도가 망가져 정상 식사가 불가능해졌을 때, 입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괴롭기 짝 없는 처지에서도 한마디 좌절의 껍질 없이 세상을 관조하셨으며 과묵하나 강하고 깊은 눈빛으로 찾아가는 이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말 없으신 가운데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인품이 있으셨습니다. 워낙 자기 자랑에는 인색하셨던 분이려 저는 알고 지내면서도 밖에서 주위 듣는 이야기로 창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터이며 이런 분을 가까이에서 마음에 품어 저의 은근한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기억 속에 묻을 수 밖에 없어져 허망합니다.

재작년부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던 창운 선생님의 눈가에서 짙은 외로움을 읽으며 가슴이 저리기도 하였습니다. 입으로 식사를 못하시는 괴롭기 짝 없는 처지에서도 한마디 좌절의 껍질 없이 세상을 관조하셨으며 과묵하나 강하고 깊은 눈빛으로 찾아가는 이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셈입니다. 말 없으신 가운데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인품이 있으셨습니다. 워낙 자기 자랑에는 인색하셨던 분이려 저는 알고 지내면서도 밖에서 주위 듣는 이야기로 창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던 터이며 이런 분을 가까이에서 마음에 품어 저의 은근한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기억 속에 묻을 수 밖에 없어져 허망합니다.

부디 휴연하 떠나신 그곳에서는 기계대신 입으로 식사하시고, 선생님 말씀처럼 ‘밥 살’ 오르셔서, 매일 매일 놓치어 그렇게도 허전해 하시던 화폭을 가까이 하시기를 빕니다.

2016년 2월 25일 문병길(문리대 61) 드림

## 이달의 사진

EXIF: SAMSUNG SM G900A, 1/1024 Sec, F2.2, 0 EV, ISO 40, 4.8mm, @31mm, Multi-segment



제 웰빙의 에너지를 Machu Picchu와 Patagonia 사진으로 동문님들과 나누고 싶네요. 마추픽추산을 두번째 하이킹해서 얻은 귀중한 장면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그날 올라간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senior였답니다. 두번째 이곳을 찾아왔기에 꼭 올라 가보고 싶은 용기가 낫지요. 동문님들도 언제 가시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안내 잘 해드리겠습니다. 정선주(간호 68)

## 독자의 광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간밤에 잠을 섰다. 예전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라 했다. 의사라는 직업상 자다가 전화받으면, 다시 잠들 수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지기도 전에 잠을 청하고 꼭두새벽부터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다.

그러나 간밤, 꽤심한 북한은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고약한 뉴스가 인터넷뉴스로 내 눈에 들어왔을 때부터 한국의 인터넷 뉴스란 뉴스는 다 들여다보고 AOL 뉴스나 CNN 뉴스를 뒤적거리느라 화도 나고, 어처구니 없고, 맨날 천날 저들의 작태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자괴감도 있었다. 핵폭탄을 만지작거리고,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막무가내로 나가는 저들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하는가? 분노섞인 자문 속에 여기 저기 인터넷 뉴스 읽느라 머리가 멍할 정도였다.

김상순씨가 1월호에 쓴 글 ‘대통령 명칭 바꾸자’에 동감합니다. 저는 ‘나라님’이라고 바꿨으면 합니다. 저희 조상들은 임금님을 ‘나라님’이라 불렀고, 저의 어머님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라는 순수한 한국 말이지요.

3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aa.org

언제 그렇게 인터넷 뉴스 보느라 잠을 섰겠는가? 부시와 앨고어가 치열한 대통령 선거개표 저녁과 고국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투표날이었다. 두 나라의 선거결과가 긴 밤 잠 못자고 설친 것이 하나도 억울하지 않게 되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간밤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사건의 추이를 쫓아가느라 잠을 섰던 것이 허탈하고, 뭘, 이런 녀석들을 동족이라고 돈 주고 살 줄고 해왔는지, 과거 정권들이 너무 얄밟다.

뒤따르는 뉴스를 보았는가? 13,000 KM를 날아 미국의 서부를 강타할 수 있다는 저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의 북한 주민들의 환호작약한다는 뉴스를? 그것은 마치 2001년 9월11일 알카에다가 이곳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를 두 여객기로 테러폭파 후 수많은 사람들이 산화되어가는 장면을 보고 아랍의 어느 거리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을

저주하고, 잘못된 정권탓만 하고 손 놓고 있어야 하나? 아니다. 우선 급한대로 한미양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한국 어디엔가 설치하려는 협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중국은 그렇게만 해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참 난세다. 중국, 러시아가 그렇고 일본하고는 서로 각세우기가 바쁘고, 세계의 경찰 노릇하느라 미국도 눈코 뜰새가 없는 것을 지나,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아!** 세계 사방에 사는 해외동포들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만을 돕는다는것을 차체에 명심하자. 결국 우리의 운명은 어차피 홀로서기라도 해서 자주(자주), 자립(자립), 그 길 밖에 있겠는가? 지난 세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했잖은가? 지금 이 때가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생즉사(死即生 生即死)’가 절절할 때이다. 그리고 다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처절하도록 사랑하자. 2.8.16 아침에 방준제(의대 63)



### [편집후기]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로 보내주세요.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다. 전임 오인환 회장님이 퇴임 후 8개월만에 총동창회 본부를 방문한 것이다(사진: 편집회의를 마치고). 때 늦긴하지만, 동창회 운영 매뉴얼까지 만들어 가져왔다. 오 회장님의 열정이 느껴진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까지 읽어가며 열심히 일하는 동창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3월호 특집으로 ‘나만의 웰빙비법’을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어려운 주제인지 마감이 다 되어 오는데 들어온 게 거의 없다. 편집위원들이 발벗고 나서 결국은 해냈다. ‘나눔’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웰빙’의 글들을 읽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 4월호의 주제를 ‘나의 도전 이야기’로 정했는데, 이것 또한 선뜻 글쓰기가 쉽지 않을 듯하는데, 동문님들의 도전과 용기가 필요하다. 들려주세요! 제발.... 편집장



## 미주 동문 업소록

### CA 남가주

| 공인회계사                                                                                                                                                                                                        |
|--------------------------------------------------------------------------------------------------------------------------------------------------------------------------------------------------------------|
| <b>CPA 김재영 공인회계사</b><br>김재영 (농대 62)<br><br>Tel. (213) 385-1985<br>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
| <b>신대식 공인회계사</b><br>신대식 (상대 60)<br><br>Tel. (310) 329-6557<br>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
| <b>Kim &amp;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b><br>김경무 (공대 69)<br><br>Tel. (213) 616-1390<br>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
| <b>AAMKO Consulting Co. (강산용 공인회계사)</b><br>강산용 (사대 73)<br><br>Tel. (213) 380-3801<br>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 <b>이강원 공인회계사</b><br>이강원 (인문대 76)<br><br>Tel. (213) 387-1234<br>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
| <b>강호석 회계사무소</b><br>강호석 (상대 81)<br><br>Tel. (714) 530-3630<br>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
| <b>STANLEY Cha, CPA</b><br>차기민 (공대 85)<br><br>Tel. (213) 739-5700, (714) 525-1821<br>schacpa@gmail.com<br><br>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br>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 <b>Jun Chang CPA</b><br>장 준 (인문대 85)<br><br>Tel. (818) 772-2811, (213) 481-0100<br>junchangcpa@hotmail.com<br><br>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br>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 <b>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b><br>조임현 (간호대 72)<br><br>Tel. (213) 487-3253<br>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br>im.cho@axa-advisors.com |

| 자동차 / 서비스                                                                                                |
|----------------------------------------------------------------------------------------------------------|
| <b>A.P.W. 자동차 부품</b><br>서동영 (사대 60)<br><br>Tel. (310) 753-9636<br>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 식품 / 음식점                                                                                                            |
|---------------------------------------------------------------------------------------------------------------------|
| <b>자연나라 Jayone Foods, Inc.</b><br>이승훈 (상대 74)<br><br>Tel. (562) 633-7400<br>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
|------------------------------------------------------------------------------------------------------------------------|
| <b>Lee &amp; Ro, Inc.</b><br>노명호 (공대 61)<br><br>Tel. (626) 912-3391<br>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
| <b>Mackone Development Inc.</b><br>양태준 (상대 56)<br><br>Tel. (213) 252-9506<br>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
| <b>ACCU Construction, Inc.</b><br>염동해 (농대 74)<br><br>Tel. (714) 641-4730<br>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

| 의료 / 약국                                                                                                                                                                     |
|-----------------------------------------------------------------------------------------------------------------------------------------------------------------------------|
| <b>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b><br>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br><br>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br>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br>drcchung@yahoo.com |
| <b>Beverly Cardiology Group</b><br>Il Young Kim MD (의대 65)<br><br>Diana Kim MD Tel. (323) 662-1175<br>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br>www.beverlycardiology.com      |
| <b>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b><br>정수만(의대 66)<br><br>Tel. (714) 539-6414<br>12555 Garden Grove Blvd. #309<br>Garden Grove, CA 92843                                                   |
| <b>Gilbert Pharmacy</b><br>최무식 (약대 66)<br><br>Tel. (714) 638-8239<br>9240 Garden Grove Blvd. #20<br>Garden Grove, CA 92844                                                  |

|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
|-------------------------------------------------------------------------------------------------------------------------------------------------------------------------------------------------------------------|
| <b>ISOPE</b><br>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br>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br><br>Jin S Chung 정진수<br>Ocean, Arctic, Energy<br>www.isopec.org, jschung@isopec.org |

| 치과                                                                                                                                     |
|----------------------------------------------------------------------------------------------------------------------------------------|
| <b>배윤범 치과</b><br>배윤범 (치대 69)<br><br>Tel. (213) 385-1233<br>3540 Wilshire Bl. LA, CA 90010<br>michaelyoonbae@gmail.com                  |
| <b>황준오 DDS</b><br>황준오 (치대 73)<br><br>Tel. (408) 732-0493<br>877 W.Fremont Ave.#H3<br>Sunnyvale, CA 94087                               |
| <b>Seonho Ha Prosthodontics</b><br>하선호 (치대 81)<br><br>Tel. (213) 365-1008<br>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br>ddsshp@yahoo.com |

| 운송 / 유통 / 원자재                                                                                                                                                                      |
|------------------------------------------------------------------------------------------------------------------------------------------------------------------------------------|
| <b>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b><br>이병준(상대 55)<br><br>Tel. (949) 655-8000<br>2100 Main Street #100<br>Irvine, CA 92614                                                  |
| <b>우주개발 / 기술</b><br><b>Tayco Engineering, INC</b><br>정재훈 (공대 64)<br><br>Tel. (714) 952-2240<br>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br>jc@taycoeng.com<br>www.taycoeng.com |
| <b>Link TV Media</b><br>김원탁(공대 65)<br><br>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br>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br>linkboxusa@gmail.com<br>www.linkboxusa.com           |

| 동물병원                                                                                                                     |
|--------------------------------------------------------------------------------------------------------------------------|
| <b>Animal Medical Clinic</b><br>신동국 (수의대 76)<br><br>Tel. (714) 990-1411<br>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 <b>Francis Animal Hospital</b><br>최재현 (수의대 66)<br><br>Tel. (909) 627-0951<br>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
| <b>Richmond Veterinary Hospital</b><br>한상봉 (수의대 67)<br><br>Tel. (510) 232-3465<br>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 변호사                                                                                                                                                                                           |
|-----------------------------------------------------------------------------------------------------------------------------------------------------------------------------------------------|
| <b>신혜원 변호사</b><br>신혜원 (사대 81)<br><br>Tel. (213) 385-3773<br>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
| <b>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b><br><b>Kenneth T.HAAN &amp; Associates, APLC</b><br>한태호 변호사<br><br>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br>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br>www.haanlaw.com |

| 부동산                                                                                                                                                           |
|---------------------------------------------------------------------------------------------------------------------------------------------------------------|
| <b>Teamspirit Realty</b><br>Jennie Lee 이종묘(간호대 69) Realtor<br><br>Tel. (714) 396-0624<br>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br>jenniecelee@gmail.com |

| 클리닉                                                                                                                                                      |
|----------------------------------------------------------------------------------------------------------------------------------------------------------|
| <b>San Bernardo Foot Clinic INC.</b><br>이상대 (농대 80)<br><br>Tel. (909) 882-3800(B), (714) 323-8612(C)<br>2095 N. Waterman Ave.<br>San Bernadino, CA 92404 |

| 리테일러 / 보석                                                                                                                                                                                         |
|---------------------------------------------------------------------------------------------------------------------------------------------------------------------------------------------------|
| <b>세계보석</b><br>김광철 (음대 59)<br><br>Tel. (213) 627-0547<br>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
| <b>라 카나다 한인교회</b><br>독고원 (공대 65)<br><br>Tel. (818) 790-7320<br>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 <b>CA 북가주</b><br><b>두리 하나 결혼정보</b> 정지선(상대 58)<br>'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br>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br><br>Tel. (510) 224-0760, 2910<br>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br>www.2makes1.com |

| GA 조지아                                                                                                                       |
|------------------------------------------------------------------------------------------------------------------------------|
| <b>Auto Plaza Group, INC.</b><br>이영진 (공대 76)<br><br>Tel. (404) 579-8282<br>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
| <b>Wesley &amp; Associates, CPA</b><br>윤태우<br><br>Tel. (770) 451-1850<br>3700 Crestwood Pkwy, Suite 380,<br>Duluth, GA 30096 |

| NV 네바다                                                                                                                          |
|---------------------------------------------------------------------------------------------------------------------------------|
| <b>Best Care Dental</b><br>김영중 (치대 66)<br><br>Tel. (702) 384-2828, (702) 480-7115<br>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

| OR 오레곤                                                                                                   |
|----------------------------------------------------------------------------------------------------------|
| <b>Flonomix Inc.</b><br>박희진 (농대 78)<br><br>Tel. (503) 648-0775<br>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 NY / NJ (뉴욕 / 뉴저지)                                                                                                                                                              |
|---------------------------------------------------------------------------------------------------------------------------------------------------------------------------------|
| <b>공인회계사</b><br><b>Changsoo Kim, CPA P.C.</b><br>김창수 (약대 64)<br><br>Tel. (212) 760-1768, (917) 647-0606<br>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br>changsookimcpa@hotmail.com |
| <b>KL CPA &amp; Associates LLC</b><br>이경림 (상대 64)<br><br>Tel. (212) 768-9144<br>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 리테일러                                                                                                                  | 부동산                                                                                                                                                                                                                       | 엔지니어링 컨설팅                                                                                                                                                                         | PA 필라델피아                                                                                                                                            |
|-----------------------------------------------------------------------------------------------------------------------|---------------------------------------------------------------------------------------------------------------------------------------------------------------------------------------------------------------------------|-----------------------------------------------------------------------------------------------------------------------------------------------------------------------------------|-----------------------------------------------------------------------------------------------------------------------------------------------------|
| <b>New York Golf Center</b><br>이전구 (농대 60)<br><br>Tel. (212) 564-2255<br>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b>Evergreen Realty</b><br>이재원 (법대 60)<br><br>Tel. (201) 944-5353<br>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 <b>Drivetech, Inc</b><br>엄달용 (공대 69)<br><br>Tel. (703) 327-2797<br>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 <b>음식점</b><br><br><b>이즈미 일식당</b><br>최종문 (공대 61)<br><br>Tel. (267) 408-7342<br>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br>(ASSI Plaza 內)                |
| <b>Young Tai Choi E.A.</b><br>최영태 (문리 67)<br><br>Tel. (212) 695-0206<br>13 E 30th St. 2FI New York, NY 10016          | <b>건축</b><br><br><b>김주현 건축사무소</b><br>김주현 (공대 93)<br><br>Tel. (347) 213-3516<br>150 S. Middle Neck Rd. #1D<br>Great Neck, NY 11021                                                                                         | <b>재정 / 보험 / 컨설턴트</b><br><br><b>C &amp;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b><br>정세근 (자연대 82)<br><br>Tel. (703) 663-8400(O), (703) 785-8467(C)<br>7023 Little River Tpkc, #350, Annandale, VA 22003 | <b>동물병원 / 치과</b><br><br><b>Cottman Animal Hospital</b><br>주기목 (수의대 68)<br><br>Tel. (215) 745-9030<br>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
| <b>American Int'l Line, Inc.</b><br>윤병하 (농대 80)<br><br>Tel. (718) 995-7060<br>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 <b>MD·VA·워싱턴 DC</b><br><br><b>치과</b><br><br><b>이준영 치과</b><br>이준영 (치대 74)<br><br>Tel. (301) 220-2828, (301) 926-9692<br>6201 Greenbelt Rd. SietJ-10. College Park, MD 20740<br>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 <b>Fairway Asset Corporation</b><br>남옥현 (경영대 84)<br><br>Tel. (301) 279-6969<br>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 <b>Blue Bell Family Dentistry</b><br>김순주 (치대 95)<br><br>Tel. (610) 278-1110<br>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 <b>한의원</b><br><br><b>이수호 한의원</b><br>이수호 (보건대 69)<br><br>Tel. (718) 353-6207<br>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 <b>부동산</b><br><br><b>BPS Appraisal Company</b><br>박평일 (농대 69)<br><br>Tel. (703) 750-1707<br>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                                                                                                                                                                                   | <b>건축</b><br><br><b>Timothy Haahs &amp; Assoc.</b><br>손재욱 (생활과대 77)<br><br>Tel. (484) 342-0200<br>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
| <b>광고문의: (484)344-5500</b>                                                                                            |                                                                                                                                                                                                                           |                                                                                                                                                                                   |                                                                                                                                                     |

## 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                      |                   |       |                             |            |                     |                  |                           |       |
|----------------------|-------------------|-------|-----------------------------|------------|---------------------|------------------|---------------------------|-------|
| <b>후원회비:</b>         | 이 청(농대 61)        | 50    | <b>Heartland</b>            | 이흥빈(의대 57) | 200                 | <b>Rocky Mt.</b> | 김인종(농대 74)                | 1,000 |
| <b>Arizona</b>       | 임춘수(의대 57)        | 200   | 이상강(의대 70)                  | 5,000      | 조정현(수의 58)          | 125              | 김창수(약대 64)                | 300   |
| <b>California</b>    | 장정용(미대 64)        | 100   | 이은미(자연 83)                  | 200        | 최한용(농대 58)          | 200              | 김혜정(문리 82)                | 3,000 |
| 박양제(약대 48)           | 전상욱(사대 52)        | 700   | 최은관(상대 54)                  | 200        | <b>Ohio</b>         |                  | NE Chapter                | 100   |
| <b>Beverly Hills</b> | 제영혜(가정 71)        | 300   | <b>DC &amp; MD &amp; VA</b> |            | <b>Oregon</b>       |                  | <b>업소록 광고:</b>            |       |
| 김기형(상대 75)           | 전원일(의대 77)        | 200   | 강길종(약대 69)                  | 200        | 김진순(상대 67)          | 200              | 김순옥(의대 54)                | 240   |
| 김동석(음대 64)           | 정동구(공대 57)        | 300   | 김진수(의대 60)                  | 100        | <b>Pennsylvania</b> |                  | 김순주(치대 95)                | 240   |
| 김병연(공대 68)           | 하기환(공대 66)        | 500   | 권철수(의대 68)                  | 200        | <b>Utah</b>         |                  | 김일영(의대 65)                | 100   |
| 김 영(수의 63)           | 황만익(사대 59)        | 200   | 오인환(문리 63)                  | 200        | <b>Virginia</b>     |                  | 김창수(약대 64)                | 240   |
| 김종표(법대 58)           | 한광수(의대 57)        | 200   | 이선구(문리 65)                  | 200        | <b>Washington</b>   |                  | 박희진(농대 78)                | 240   |
| 박범순(가정 70)           | <b>Chicago</b>    |       | 이영목(공대 59)                  | 200        | <b>Washington</b>   |                  | 신동국(수의 76)                | 100   |
| 박자경(사대 60)           | <b>NY Chapter</b> | 2,000 | <b>Chicgo</b>               |            | 김종휘(약대 54)          | 200              | 이경림(상대 64)                | 240   |
| 박종수(수의 58)           | 구행서(공대 69)        | 200   | <b>Georgia</b>              |            | 송영두(의대 56)          | 200              | 백 순(법대 58)                | 200   |
| 백옥자(음대 71)           | 이용락(공대 48)        | 300   | <b>Hawaii</b>               |            | 이만택(의대52)           | 200              | 서윤석(상대 62)                | 200   |
| 양승문(공대 65)           | 최희수(문리 67)        | 100   |                             |            | 이창수(약대 64)          | 500              | <b>Website 광고:</b>        |       |
| 안혜정(가정 77)           | 송요준(의대 64)        | 200   |                             |            | 문석면(의대 52)          | 400              | 뉴잉글랜드                     | 1,000 |
| 염동해(농대 64)           | 주중광(약대 60)        | 1,000 |                             |            | 이지춘(미대 57)          | 200              | 룩키마운틴                     | 300   |
| 위종민(공대 64)           | 양순우(법대 67)        | 200   |                             |            | 민준기(공대 59)          | 1,200            | <b>Brain Network 후원금:</b> |       |
| 이건일(의대 62)           | 이강홍(상대 60)        | 500   |                             |            | 전병우(문리 69)          | 200              | 이준영(치대 74)                | 100   |
| 이명선(상대 58)           | 김승태(의대 57)        | 200   |                             |            | 지흥민(수의 61)          | 200              | 주기목(수의 68)                | 240   |
| 이병준(상대 55)           | 김창원(공대 49)        | 200   |                             |            | 정학량(약대 56)          | 260              | 최무식(약대 66)                | 240   |
|                      |                   |       |                             |            | 이운순(의대 52)          | 200              | 최종문(상대 61)                | 240   |
|                      |                   |       |                             |            | 손재욱(가정 77)          | 25,000           | <b>디자인 광고:</b>            |       |
|                      |                   |       |                             |            | 최종문(공대 61)          | 200              | 김광호(문리 62)                | 9,000 |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                                                                                                                                                                     |                                                                                                        |                                                                                                                    |
|---------------------------------------------------------------------------------------------------------------------------------------------------------------------|--------------------------------------------------------------------------------------------------------|--------------------------------------------------------------------------------------------------------------------|
| <b>성명 :</b>                                                                                                                                                         | <b>단과대학 및 대학원 :</b>                                                                                    | <b>입학연도 :</b>                                                                                                      |
| <b>주소 :</b>                                                                                                                                                         | <b>전 주소 :</b>                                                                                          |                                                                                                                    |
| <b>업소 이름 :</b>                                                                                                                                                      | <b>업소 주소 :</b>                                                                                         |                                                                                                                    |
| <b>전화 :</b>                                                                                                                                                         | <b>Email :</b>                                                                                         |                                                                                                                    |
| <b>동창회후원금</b>                                                                                                                                                       | <b>동창회비(구독료)</b>                                                                                       | <b>업소록 광고비</b>                                                                                                     |
| <input type="checkbox"/> 연 \$200 <input type="checkbox"/> 연 \$1,000                                                                                                 | <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5.7~2016.6)<br><input type="checkbox"/> \$75 (1년: 2016.7~2017.6) | <input type="checkbox"/> \$240 (2015.7~2016.6)<br><input type="checkbox"/> \$240 (2016.7~2017.6)                   |
|                                                                                                                                                                     |                                                                                                        | <b>특별후원금</b>                                                                                                       |
|                                                                                                                                                                     |                                                                                                        |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br><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br><input type="checkbox"/> 종신 이사회비 |
| <b>보낼 곳 :</b>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                                                                                                        |                                                                                                                    |
| <b>지불 방법 :</b>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                                                                                                        |                                                                                                                    |
|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 <b>전화</b> 484-344-5500    Ext 302(    )    or    Check No.:                                            |                                                                                                                    |
| <b>Card No.:</b>                                                                                                                                                    | <b>Security Code :</b>                                                                                 | <b>Expire Date:</b>                                                                                                |
| <b>Cardholder's Name :</b>                                                                                                                                          | <b>Date :</b>                                                                                          |                                                                                                                    |
| <b>Address No. Only</b>                                                                                                                                             | <b>Zip</b>                                                                                             | <b>Pay to order of 'SNUAA-USA'</b>                                                                                 |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귌)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운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중(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황선희(공)  
고문 |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 심화진(음)      사업국장 | 한중희(공)  
조직국장 | 백옥자(음)      섭외국장 | 박형준(공)  
재무국장 |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 김원영(미)      사무장 | 이제니  
(Webmaster)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화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차임경(가정)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송보현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원(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종민(공)  
이강원(공) · 이민연(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4명 미정

감사 :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 지역      | 이름   | 연락처         | Email                        | 회계연도                     |         |
|---------|------|-------------|------------------------------|--------------------------|---------|
| 남가주     | 회장   | 박해옥(간호 69)  | 818.606.6503                 | jennypaek2@gmail.com     | Feb-Feb |
|         | 차기회장 | 김병연(공대 68)  | 213.923.0907                 | byeongk@gmail.com        |         |
| 북가주     | 회장   | 임희례(간호 73)  | 831.818.2959                 | acuheerei@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김중수(공대 74)  | 484.480.0506                 | jskim0524@comcast.net    |         |
| 뉴욕      | 회장   | 민준기(공대 59)  | 845.270.0451                 | joonmin1@yahoo.com       | Jan-Dec |
|         | 차기회장 | 김도명(농대 70)  | 917.207.5949                 | sepo22@hotmail.com       |         |
| 뉴잉글랜드   | 회장   | 이이인(공대 68)  | 781.862.5270                 | euinlee@verizon.net      | Jul-Jun |
|         | 차기회장 | 홍지복(간호 70)  | 401.782.8000                 | hongjeebock@gmail.com    |         |
| 달라스     | 회장   | 오기영(공대 73)  | 214.457.7974                 | kiyoungoh@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룩키마운틴스  | 회장   | 송요준(의대 64)  | 970.396.0616                 | yojunsong@me.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미네소타    | 회장   | 조해석(공대 84)  | 952.807.6559                 | haeseokcho@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황효숙(상대 65)  | 651.308.0796                 | sook@nano-dyne.com       |         |
| 샌디에고    | 회장   | 최홍수(자연대 87) | 858.342.0245                 | heungsoo.choi@knobbe.com | Jan-Dec |
|         | 차기회장 | 서정용(공대 81)  | 858.740.4843                 | cysuh727@gmail.com       |         |
| 시카고     | 회장   | 정승규(공대 60)  | 773.562.0677                 | s_jung@att.net           | Jan-Dec |
|         | 차기회장 | 한경진(상대 59)  | 847.858.7556                 | jimkhahn@gmail.com       |         |
| 애리조나    | 회장   | 오윤환(문리 56)  | 520.271.2601                 | younhwan_oh@yahoo.com    |         |
|         | 차기회장 |             |                              |                          |         |
| 앨라스카    | 회장   | 윤재중(농대 55)  | 907.223.0887                 | jaejuon@hotmail.com      |         |
|         | 차기회장 | 배석현(농대 58)  | 907.561.0818                 |                          |         |
| 오레곤     | 회장   | 백대현(상대 77)  | 503.587.0447                 | daehyunbaek@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 오하이오    | 회장   | 이성우(상대 72)  | 614.294.2453                 | rimshake@ameritech.net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 워싱턴 DC  | 회장   | 장경태(상대 75)  | 703.901.3770                 | jangkent@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안선미(농대 65)  | 347.776.0304                 | sunmi_ahn@yahoo.com      |         |
| 워싱턴주    | 회장   | 하주홍(경영 77)  | 402.631.3567                 | jh.ha@live.com           | Jan-Dec |
|         | 차기회장 | 임현민(공대 84)  | 425.444.3899                 | mrmst@hotmail.com        |         |
| 유타      | 회장   | 김한섭(의대 53)  |                              | hanseup@ece.utah.edu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 조지아     | 회장   | 강창석(의대 73)  | 314.363.8396                 | kangs5@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이문파(음대 76)  | 404.889.7279                 | woonpa@gmail.com         |         |
| 중부텍사스   | 회장   | 김성근(법대 78)  | 512.750.4680                 | hi5chris@gmail.com       |         |
|         |      |             |                              |                          |         |
| 필라델피아   | 회장   | 전방남(상대 73)  | 610.220.3461                 | jeonbana@gmail.com       | Jul-Jun |
|         | 부회장  | 유영진(경영 85)  | 215.307.0001                 | yx23yoo@gmail.com        |         |
| 플로리다    | 회장   | 윤기향(법대 65)  | 561.962.5185                 | yuhn@fau.edu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 캐롤라이나   | 회장   | 이상구(자연 78)  | 919.610.2830                 | slee109@nc.rr.com        |         |
|         | 차기회장 |             |                              |                          |         |
| 테네시     | 회장   | 박재현(자연 81)  | 865.696.9066                 | jae.park99@gmail.com     | Jan-Dec |
|         | 부회장  | 백승준(농대 85)  | 865.974.8216<br>865.671.3602 | sbaek2@utk.edu           |         |
| 하와이     | 회장   | 성낙길(문리 77)  | 808.956.2611                 | nsung@hawaii.edu         | Jul-Jun |
|         | 차기회장 | 전수진(식공 89)  | 808.956.8283                 | soojin@hawaii.edu        |         |
| 하틀랜드    | 회장   | 이상강(의대 70)  | 918.687.1115                 | mpcsglee@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장영준(농대 83)  | 913.544.2933                 | yjdds@gmail.com          |         |
| 휴스턴     | 회장   | 최인섭(공대 75)  | 713.952.8989                 | inchoi@msn.com           | Jan-Dec |
|         | 부회장  | 구자동(상대 70)  | 713.206.1942                 | kykey2003@yahoo.com      |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이명규(농대 69)  | 778.378.7339                 | nycmikelee@gmail.com     | Jan-Dec |
|         | 부회장  | 김종욱(공대 70)  | 604.524.0101                 |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정중기(공대 70)  | 403.617.7585                 | movics@shaw.ca           | Mar-Feb |
|         | 부회장  |             |                              |                          |         |

263호 | 2016년 3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31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COTTMAN  
Animal Hospital

Keep Your Pets the  
Happiest and Healthiest  
With Our Veterinary Services

215-745-9030  
Fax: 215-745-3055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주거목 (수의 68)

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김창수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MBA

Email: changsookimcpa@hotmail.com

Manhattan Office: (212) 760-1768  
38 W. 32nd 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Flushing Office: (718) 460-0625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약대 68, 경영대학원 71 졸업)

서울대 약대(1968년) 및 경영대학원 졸업(1971년, 경영학석사)  
뉴욕대(NYU) 경영대학원 졸업(1977년, MBA)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 및 뉴욕주 공인회계사협회 회원  
Deloitte Haskins & Sells CPAs 근무  
뉴욕주 재무성 감사국 세무감사관 및 감사반장 10년간 역임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경제고문 역임  
뉴욕 한인식품협회(KAGRO) 회계고문 역임  
뉴욕에서 CPA 개업 중

뉴욕 한국일보에 <경제 에세이> 및 <텍스 칼럼> 15년간 연재  
뉴욕 중앙일보에 <수요경제 칼럼> 및 <전문가 칼럼> 4년간 연재  
<알기 쉬운 미국의 생활 경제> 출판(318페이지, 1992년)  
<미국의 소득세 가이드> 출판(360페이지, 1997년)  
<미국 생활과 재정계획> 출판(238페이지, 2004년)  
뉴욕 중앙일보에 <경제 에세이> 칼럼 연재 중  
BNB 하나은행 이사(현)

서울대 동문 10% 할인  
대표이사 박수경 [84주 소비자학과]

예쁠 때 가고 싶은 사람  
운명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  
단남에 더 신중한 사람  
아직 내 사람을 못 만난 사람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매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결혼정보회사  
매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CCM 업계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CCM 인증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착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 KISS®

##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관



신관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http://www.KISSusa.com)